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ptismal Procedure: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Hon Sang Ye Sik Seo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1924)

최석환 Choi, Suk Hwan

- 종신대 신학과 · 한국의국어대 영어과 졸업, 종신대 철학박사(Ph.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육군리더십센터 상담교관
 - VISION2020선교단 지도목사, 현 육군 제6군단 군종참모
- 진군교회 담임목사, 한국군종목사단 총무,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상담심리교청학회 연구위원, 한국군종목사단 선사인 캠페인 TF장
 - 한국군선교연구소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는 어떠했을까? 참으로 흥미로운 질문이다. 본 소논문에서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에 의한 예식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를 중심으로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장로교 최초의 예배지침서 『조선

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34), 영어로 기록된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1919)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장로교 초기의 세례식 순서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목수지법』(1919)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의 ‘예배모범’과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를 문헌비교분석에 의해 연구한 것을 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의의와 내용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1924)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로서,¹ 『목수지법』(1919),²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1922)을³ 참고하였으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였다.⁴ 물론 주일예배 순서가 나타나지 않으며, 세례와 성찬예식이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나타난다는 점으로 보아 특별하며, 임시적인 예식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⁵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목차는 다

¹ 『혼상예식서』(1924)는 감리교 최초의 예식서 『미이교회강례』(1890)를 포함하여, 『예수교감리회강례』(1899), 『대강령과 규측』(1910), 『남감리회도리와 장정』(1919)보다 늦게 출판되었다. 그러나 감리교 문헌들은 거의 미국 예전서를 번역한 것이지만, 장로교 『혼상예식서』는 한국인에 의해서 집필된 한국교회 최초의 예식서이다. 한국 장로교 분열(1959) 이후 나온 최초의 장로교 예식서는 통합 교단의 『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61)이며, 그 뒤를 이어 기장 교단의 『예식서』(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1964), 합동 교단의 최초의 예식서 『표준예식서』(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78)가 발행되었다.

²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19).

음과 같으며, 연구할 분야는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이다.

第一章 婚禮式書

一. 婚禮의條例

二. 婚禮의節次

三. 婚禮의服裝

第二章 喪禮式書

一. 喪禮의條例

二. 喪禮의節次

三. 喪禮의服裝

附錄 聖禮와將立式

一. 洗禮의條例와式

二. 聖餐의條例와式

三. 將立의條例와式⁶

³ 『朝鮮 예수教 長老會 憲法』(京城:朝鮮耶穌教書會, 1922):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한국 장로교 최초의 독노회(1907)에서 ‘소요리문답’, ‘신조’, ‘규칙’ (1907)을 채택하였으며, 총회 조직(1912) 후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1919)을 채택하였다. 그 후 간단한 정치조례인 ‘규칙’을 폐지하고 완성된 ‘정치조례’ (1922)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信經, 小要理問答, 政治, 禮拜模範, 勸懲條例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朝鮮 예수教 長老會 憲法』(1922)이 출판되었다.

⁴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125. 예를 들면 상례식(喪禮式)에서 ‘하관식’은 미국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의식을 보여 준다. 다음의 논문도 참조하라.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재” (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108-109, 374.

⁵ Ibid.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는 김선두, 박문찬, 김필수, 박승봉 등 한국인 목사들로 구성된 예식위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⁷ 이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를 제12차 총회(1923)에 제출하였으며, 제13차 총회(1924)에서 통과되어 출판하게 되었다. 특히 예식위원 대표로 박승봉(朴勝鳳) 목사는 서문을 통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예식위원으로서 헌상예식의 통례를 만들었음을 언급하였다.

“우리總會에서禮式委員會選舉하야婚喪禮式의通例를如左히調製하야通過하고이에刊行하노니惟컨디從此로一遵할通例가有하야主禮者와行禮者의間에거의서로齟齬함이無할가하노라.”⁸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마지막 부분에는 교열위원(校閱委員)들이 기록되어 있다.

“紀元後一九二四年 甲子冬에 婚喪禮式書校閱委員 梁旬伯 車相晉 等謹跋.”⁹

위의 글을 보면 1924년 양전백, 차상진 목사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의 교열위원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⁶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1-2.

⁷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경성:조선예수교장로회, 1921), 128.

⁸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2.

⁹ Ibid., 76. 1925년 재판은 창문사(彰文社)에서 발행되었다.

2.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의 이해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성례와 장립식’ 제1절 세례의 조례와 식 제9항에는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이 나와 있다. 이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과 제10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만의 아주 독특한 부분으로서 세례의 이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九. 洗禮에對한聖經要節

(1) 洗禮는聖經의命令이오

(마 二十八〇十八-二十) (막 十六〇十五-十六) (요 三〇二十二)

(요 四〇一-二)

(2) 洗禮는三位一體일함으로

(마 二十八〇十九) (고전 一〇十三)

(3) 洗禮는罪洗는票라

(시 五十一〇二,七) (시 一〇十六-十八) (렘 四〇十四) (겔 十六〇

九) (엡 五〇二十六) (딤후 三〇五) (벧전 三〇二十一) (고전 六〇十一)

(히 二十二 〇十六) (겔 三十六〇二十五)

(4) 洗禮는예수의死活을습하여맞는것이라

(롬 六〇三,四) (골 二〇十二) (막 十〇三十八,九) (눅 十二〇五十)

(5) 洗禮는주의聯合爲一하는票라

(갈 三〇二十七) (고전 十二〇十三)

(6) 乳兒洗禮

(히 十六〇三十三) (二〇三十八,九) (눅 十八〇十六) (고전 七〇

十四)

(7) 불과聖神의洗禮

(마 三〇十一) (요 三〇五) (히 十九〇五,六) (고전 十二〇十三)”¹⁰

상기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은 아래의 『위원입교인규도』(1895)¹¹에서 제시한 세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생각나게 한다.

“성서에이뜻을그르친말습이잇스니즈세히보기를브라노라

마태이십팔장십구절

마가십육장십오절십륙절

마태삼장십일절

요한일장삼십삼절

삼장오절

스도히전팔장십이절과삼십륙절브터삼십팔절까지

구장십칠절십팔절

십장삼십칠절

십륙장십스절십오절과삼십일절브터삼십삼절까지

라마륙장삼절브터오절까지

¹⁰ Ibid., 17-19.

¹¹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敎人規條)』(1895)는 평양신학교 설립자이자 한국 장로교회 창건자 중 한 사람인 마펫 선교사(Samuel Austin Moffet, 馬布三悅, 1864-1939)에 의해, 중국 산둥 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네비우스(John Livingstone Nevius, 1829-1893)의 책 Manual for Enquirer를 주로 참고하고 한국인 교사의 도움을 받아 편저한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朝鮮耶穌敎書會, 1895);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228-230.

가라태삼장이십칠절

데다삼장오절

스도헝전이장삼십팔절브터스십일절씩지

구약창세기십칠장십칠절.”¹²

비교하면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세례에 대한 성경요절은 총 30개로서 구약 5개, 신약 25개이다. 『위원입교인규도』(1895)에 나타난 세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은 총 16개로서 구약 1개와 신약 15개이다.¹³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는 『위원입교인규도』(1895)보다 약 2배 증가된 세례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약은 5배 증가하였다.¹⁴ 이제 언급된 성경요절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세례의 이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으로서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다.

¹²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教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18.

¹³ 마 28:19; 막 16:15-16; 마 3:11; 요 1:33, 3:5;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1-33; 롬 6:3-5; 갈 3:27; 딤후 3:5; 행 2:38-41; 창 17:17.

¹⁴ 시 51:2, 7; 사 1:16-18; 렘 4:14; 겔 16:9, 36:25.

마가복음 16장 15-16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사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을 믿지 못함을 꾸짖으며 하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집례를 상상케 하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1-2절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말을 언급한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는 말씀이다.

이 모든 구절을 통해 세례가 성경의 명령임을 역설한 것이다.

2)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린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한 내용으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비교 논리에서 제시된 구절로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말씀이다.

3)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시편 51편 2, 7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직언한 말씀으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

하소서……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는 말씀이다.

이사야 1장 16-18절은 죄로 가득 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권면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는 말씀이다.

에레미야 4장 14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서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라는 말씀이다.

에스겔 16장 9절은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모습을 그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거듭남의 씻음을 강조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여덟 명을 언급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을 언급하며 주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은 바울의 회심을 전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라는 말씀이다.

에스겔 36장 25절은 이스라엘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라는 말씀이다.

4) 예수의 사활(死活)을 합하여 받는 세례

로마서 6장 3-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마가복음 10장 38-39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원을 언급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다.

5)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다.

6) 유아세례

사도행전 16장 33절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상황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2장 38-3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어린아이를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 각성하도록 하신 것으로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는 말씀이다.

7) 불과 성령의 세례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19장 5-6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에서도 언급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에서는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매우 강조된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3)가 매우 약하게 언급되었다. 그것도 전도나 입교 측면이 아닌 유아세례 측면에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이 한 번 언급된 것이다.

3.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

1) 유아세례 순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

아세레,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 모범 제9장과 제10장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세례는 공연히 지체하여 줄 것도 아니오 하여 한 형편을 물론 하고 스인이 줄 수가 업고 반드시 하느님의 스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교의 목사라야 줄지니라. 이 세례는 흔히 교회 내 모든 회중 앞 해서 베풀지니라.”¹⁵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는 목사의 세례 집례를 재천명한 이후 유아세례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유아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부모님 일인이나 양인이 다 세례를 받을 유아를 데리고 온다.

② 세례 주기 전에 목사는 아래와 같이 성례에 관한 성질과 세례식의 목적을 설명하여 훈계한다.

“이 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표이라 구약서에 아브라함의 종손이 할례를 받는 권이 잇던 것과 갓치 복음의 은혜 아래 잇는 성도의 종손에게 이 레식을 행할 권이 잇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갓다 하셨으며 복음에 허락하신 것은 성도와 밋 그 집안 에스지 밋친다 하셨고 스도들도 이와 갓치 온 집안 세례를 베풀지라 우리의 성품은 죄와 건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신의 권능으로 성결케 함을 밋아야 할지니라.”¹⁶

¹⁵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京城:發行所 未詳, 1924), 5-6.

¹⁶ Ibid., 6-7.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조선야소교사회, 1922), 206.

③ 목사는 아래와 같이 부모를 권면하여 조심하여 부모의 직을 다하라 한다.

“부모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칠지니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우리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라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기록되었는데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니라 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이 그 아히 얹혀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장성케 할지니라.”¹⁷

④ 목사가 유아 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묻는 서약을 한다.

“①그대는 이 오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신의 은혜로 시롭게 되여야 할 줄 아느뇨 ②그대는 이 오히를 위하여 하느님의 언약에 허락하신 것을 바라며 자기의 구원 얻기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갓치 이 아히 구원 얻기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밋는 중에서 바라느뇨 ③그대가 지금 완전히 이 아히를 하느님께 밋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이 아히 얹혀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히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히와 갓치 기도하며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느님의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이 오히를 주의 권고와 교훈에서 장성케 하기를 허락하느뇨.”¹⁸

¹⁷ Ibid., 8.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22), 207.

¹⁸ Ibid., 9-10.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7-208.

⑤ 목사가 세례식을 행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은 문구로 세례를 준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심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물노그
으히 머리에도말(塗抹)할지니라.”¹⁹

2)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후 입교 시스템 구축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아세례,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교우의 자녀로 유세(乳洗)를 받은 아히는 교회 권고와 처리하에 있고 요리문답과 스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송케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뉘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오 성년이 된 후에는 나면서 얻은 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교우되는 것을 기억케 하고 반드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 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할 원하는 마음이 나게 할지니라.”²⁰

한국 초기 장로교의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教育) 교과과목을 정리하자면 첫째,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이다. 상기한 세 가지를 모두 읽고 암송시키는 것이다. 둘째, 기도방법(祈禱方法)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침으로 삶 속에

기도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죄중오방법(罪憎惡方法)이다.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신에 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섯째, 교회론(教會論)이다. 성년이 된 후에 출생하면서 얻은 특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우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이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증거하고, 성찬 참여의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세아(乳洗兒)는 성장하여 당회 허락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때는 반드시 교회 앞에서 그 신앙을 공식선언한 후에 입교하게 하고, 출생 시부터 교회에 특수한 관계가 있던 것을 표하여 깨닫도록 설명한다.

이러한 유세자교육 후 유세아는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선언한 후 입교를 한다. 즉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세아의 입교 시 목사의 설명과 선언문구는 다음과 같다.

“유세를 받음으로 출생시부터 교인이 되고 약도의 허락으로 후사가 되며 아시에 그 부모의 엄중한 빙서로 하나님의 바른자들은 당회가 그의 신앙과 주의 몸 분변하는 지식을 문답하야가 합한 줄노 인정하야 쓴즉 모모(호명)는 지금부터 믿음의 권속 중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책임의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할지니라.”²¹

3) 어른 입교 순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유

¹⁹ Ibid., 10.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8.

²⁰ Ibid., 11-12. 다음을 참조하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09-210.

²¹ Ibid., 12-13. 다음을 참조하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1.

아세례, 입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 예배 모범 제10장을 참조하여 입교 순서를 제안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제10장과 달리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는 유세자 입교 순서를 부록 1절 7항에서 언급하지만, 어른 입교 순서는 8항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은 제10장 1조부터 5조까지 유세자 입교와 어른 입교를 혼합하여 설명하고 있다.²²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1922)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혼합된 순서는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 부록 1절 ‘세례에 대한 조례’ (유아세례, 입교)는 유세자 입교를 별도로 설명한 후, 어른 입교 순서를 회중 앞에 기립,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른 입교대상자는 학습인(學習人)이나 교우 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지원한 자이다. 이때 당회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께 순종하며 충성된 신앙의 형편의 유무를 문답하여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목사가 교회 앞에 공식으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세례를 준다. 어른 입교 순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 받을 자가 회중에 기립한 후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러오기를 원하는 자는 당회가 공식으로 그의 밝은 은혜와 믿은 증거를 인정한 후에 입교케 하는 고로 지금 모스시(호명)의게 덕하야 몇 가지 서약도례를 무른 후에 주님의 세우신 레법도로 세례를 주어 갓치 성도된 것을 환영하며 감스히 녀이노라 이 세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게 접붙침과 주와 연합하는 표요 인쳐 증거하는 것이라 이 후로는 그덕들이 더욱 신중히 하여 하나님과 교회로 더부러 체결한 언약을 준수할 줄노 아노라.”²³

② 어른 세례대상자에게 목사가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①그덕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로를 밋을 만한 자 인터 그의 크신 준비하심에서 구원 엿을 것 외에 소망이 업는 자인 줄 아노노 ②그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으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밋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갓치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한 분뿐이신 줄노 알고 그를 밋으며 그의게만 의지하노노 ③그덕들이 지금 성신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여 그 교훈도로 힘써 힘하며 모든 죄길을 바리고 보이신 본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노노 ④그덕들이 이 교회의 헌법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비호하며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기로 허락 하나노.”²⁴

²²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5-77.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의 예배모범 제10장 5조 1항은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2항은 어른 세례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3항은 양군(兩群) 대상자들에게 동일(同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²³ 『朝鮮예수교長老會婚喪禮式書』, 14.

③ 문답을 통해 어른 세례대상자가 다 승낙한 후에 목사가 물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이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목사가 기도하고 마친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시(성명)여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일심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²⁵

4.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들의 세례식 순서 비교분석

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들인 광안련의 『목수지법』(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과 한글판(1922) 예배모범 제9장,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를 비교해 볼 때 목사의 기도의 횟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목수지법』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이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문답(서약), 기도, 세례, 기도의 순이다. 즉 예배모범 제9장 5조 4항에는 문답(서약) 후 ‘기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는 예고, 세례식의 목적 설명과 권면, 문답(서약), 기도, 세례의 순서로서,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기도가 생략되어 있다. 『목회학』(1936)에 의하면 서약 전 기도는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하게 하는 것이며, 세례 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을 하

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인 것이다.²⁶

결론적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는 『목수지법』보다 1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보다 2회 기도의 순서가 감소되었다.

이미 언급한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 제10장과 달리 유세자 입교식과 어른 입교식을 분리하여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본 연구자가 『목수지법』(1919)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1919), 한글판(1922)의 ‘예배모범’과 『조선예수교장로회헌상례식서』(1924)의 세례식 순서를 문헌비교분석법에 의해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1>과 같다.

²⁴ Ibid., 15-16.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6-77;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2-213.

²⁵ Ibid., 16. 다음을 참조하라.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7;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214.

²⁶ 광안련의 『목회학』(1936)에서는 서약 전 기도와 세례 후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誓約의 뜻을 解釋한 後에 牧師前뿐 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임을 覺悟케 하는 祈禱가 있고 施洗하고 다시 하나님께 付託하는 祈禱가 있을 것이다.” 광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아소교서회, 1936), 138.

〈표1〉 3대 초기 문헌 비교분석에 따른 세례식 순서

문헌명	『목스 지법(牧師之法)』 (1919)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1919)(1922) 예배모범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朝鮮예수敎長老會婚禮式書) (1924)
유아 세례 순서	1. 당회의 세례 전 부모문답 2. 착석 3.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부모의 직임과 본분 맹세의 뜻) 4. 기도 5. 기립 후 문답(서약) 6. 세례 7. 기도	1. 착석 2. 목사의 설명 (세례식 의의) 3. 기도 4. 기립 후 문답(서약) 5. 기도 6. 세례 7. 기도	1. 부모의 예고(豫告) 2. 목사의 설명(說明) 3. 목사의 권면(勸勉) 4. 세례 서약(誓約) 5. 축복하는 기도(祈禱) 6. 세례(洗禮)
어른 세례 순서		1.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과목 이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 (朝鮮예수敎長老會婚禮式書) (1924)와 동일함. 2. 기립 3.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4.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5. 문답 6.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 된 자들을 위한 권면 7. 어른 세례대상자를 위한 세례집례 8. 기도	1. 기립(起立) 2. 목사의 설명(說明) 3. 문답(問答) 4. 세례(洗禮) 5. 기도(祈禱)
유세자 입교식 순서	1. 예배모범 규측대로 어른 세례와 입교 예식을 시행함.		1.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과목 이수 1) 요리문답(要理問答), 사도신경(使徒信經), 주기도문(主祈禱文) 독송(讀誦) 2) 기도방법(祈禱方法) 3)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 4) 신애경순종방법 (神愛敬順從方法) 5) 교회론(敎會論) 6) 입교식(入敎式)과 성찬식(聖餐式) 2. 당회의 문답 3. 자신의 신앙을 선언 4. 목사의 입교 설명 5. 목사의 입교 선언

나가는 말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는 한국 장로교 최초의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 집필된 예식서’ 이기에 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는 『위원입교인규도』(1895)보다 약 2배 증가된 세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약은 다섯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서는 『위원입교인규도』(1895)에서 매우 강조된 ‘전도와 입교로서의 세례’ (행 8:12, 36-38, 9:17-18, 10:47, 16:14-15, 33)가 매우 약하게 언급되었으며, 전도나 입교 측면이 아닌 유아세례 측면에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이 한 번 언급된 것은 비전 2020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자로서는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의 유아세례 순서에 있어서 『목스 지법』보다 1회,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보다 2회 기도의 순서가 감소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볼 때 기도의 순서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가 성경의 명령으로서의 세례, 삼위일체 이름의 세례, 죄 씻는 표로서의 세례, 예수의 사활(死活)을 합하여 받는 세례, 주와 연합위일(聯合爲一)하는 표로서의 세례, 유아세례, 물과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1004동의 군인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조선예수교장로회혼상례식서』(1924)에 나타난 유아세례 후 유세자교육(乳洗者敎育) 교과과목인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독송(讀誦), 기도방법, 죄증오방법(罪憎惡方法), 신애경순종방법(神愛敬順從方法), 교회론, 입교식과 성찬식은 유세자교육 후 입교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인 대한민국 1004동의 군인교회가, 세례대상자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하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to the Service for God and Neighbors

■ 강사문 Kang, Sa Moon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구약성경에서 섬기다는 뜻을 가진 ‘아바드’란 동사의 의미는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시중드는 것으로 신약의 ‘디아코니아’와 대응하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디아코니아란 용어가 구약 후기 생활권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개인적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남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고 받들고 수고하고 시중드는 일을 뜻하는 신약성경적 의미와 일치한다.¹ 구약성경에 아바드란 말은 동사로 289회 사용되었고, 명사로 799회 사용된다.² 구약성경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많은 빈도수는 시편과 예언서에 나타난다.³ 아바드의 명사 형태인 ‘에베드’(섬기는 자)는 시편에 57회, 이사야에 40회, 예레미야에 32회 나타나고, 그리고 ‘아바

드’(섬기다)가 동사로서 예레미야에 27회, 시편에 8회와 읍기와 전도서에 각각 3회씩 나타난다.

그런데 이 아바드란 동사가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무려 21종류의 다양한 어휘로 번역되고 있다.⁴ 신약의 디아코니아란 어휘도 23가지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⁵

70인역에 나타난 빈도수에 따라 5종류의 동사를 보면 ① ‘아바드’란 동사는 ‘중으로 섬기다’, ‘노예로서 주인을 섬긴다’(δωλεῖν)라는 의미(114회)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다. ② ‘하나님께 예배드린다’(λατρεύειν)는 뜻으로 75회 사용되고, ③ ‘실행하다’(εργαζέσθαι)라는 뜻으로 37회 번역되고, ④ ‘행한다’(ποιεῖν)라는 뜻으로 22회 번역되고 있다. ⑤ ‘신하가 왕을 공적으로 섬긴다’(δεδιτομρδευ)라는 뜻으로 13회 사용된다. 명사로 ①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δουλος)로 314회 번역되고, ② ‘젊은 종’을 의미하는 ‘파이스’(παῖς)로 336회 번역되고, ③ ‘종’(servant)을 의미하는 ‘세라폰’(θεραπων)으로 42회 번역되고 있다.⁶

우리말에서도 ‘섬기다’ 또는 ‘봉사한다’는 말은 ①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② 남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노력하는 것, ③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⁷ 따라서 위의 사

²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Bible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2nd Edition (Jerusalem: Kiryat Sefer Publishing LTD., 1993), 817-822.

³ H. Ringgren, “רבב”,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86), hrsg. von G. J. Botterweck et al. Band. V, cols. 987-997. 이후부터는 TWAT로 약칭함.

⁴ E. C. DosSantos, An Expanded Hebrew Index for the Hatch-Redpath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Jerusalem: Baptist House, no date), 148.

⁵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13-14.

⁶ Ringgren, “רבב”, TWAT, Bd. V, cols. 987-988.

¹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Diakonia)”, 「디아코니아 심포지엄 자료집」 (1995. 11. 2), 17.

전적 의미가 말하는 바 ‘섬기다, 봉사한다’는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섬김의 의미를 찾아보고 섬김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을 라르슈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알아본다.

1. 섬김—봉사(아바드)의 이론과 의미

구약에서 ‘섬기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란 말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섬김의 의미와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고, 섬김의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까지 포함되고, 더욱이 땅도 아바드(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다(창 2:5, 3:23, 4:2, 12; 삼하 9:10; 잠 12:11, 28:19; 속 13:5 등). 따라서 섬김의 범주는 폭이 넓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자연까지가 섬김의 대상이다.

구약의 섬김의 의미인 ‘아바드’란 말은 구약에서 사용된 대로, 또 70 인역에서 번역된 대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섬김이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

섬김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수 또는 무보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은 처음에는 무보수로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라반을 섬겼고, 후에는 라헬과 보수를 위해서 7년간 또 그를 섬겼다(창 29-30 장). 출애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이집트의 바로를 섬겼다(출 1:14). 성읍에 속한 땅을 기는 일(하아브두후)도 성읍을 섬기는 일(하오베

드 하이르)로 표현된다(겔 48:18-19).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일, 즉 성전봉사를 뜻하기도 한다(민 3:8, 4:23, 27, 7:5, 8:22).

2) 섬김이란 사랑의 실천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시고(신 4:37), 다윗을 사랑하시고(삼하 12:24), 의인을 사랑하신 것(시 146:8)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사랑의 실천행위를 섬김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한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신 4:37-40).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써, 우리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까지를 사랑하고 돌보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신명기 6장 4-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 즉 한 분 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마 22:37-38; 막 12:29-30; 눅 10:27-28).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⁷ 이회승 편저, “봉사”,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1564.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이웃과 자연 사랑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자연 사랑으로 구체화, 또는 현실화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요일 4:20).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수님도 둘째로 큰 계명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9) 하셨다. 그러므로 이웃·자연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는 말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음으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시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외자의 공통된 명칭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와 떠돌이 객이다. 가난한 자는 향존하기 때문에(신 15:11; 요 12:8) 구약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빈자들을 직접 돌보시고 건져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편 10편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오제르)”로,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 35:10)로 묘사되고 있다. 시편 40편 17절에서도 가난한 시인은 아뢰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한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자(오제르)이시다. 하나님이 오제르로서 시편에 4회, 율기와 역대상에 각각 한 번 나타난다.⁸ 즉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것을 명령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고 명하신다. 시편 82편 3-4절에서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변호해 주고 가련한 자와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고 분부하신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한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서는 “제7년에 묵은 땅에서 걷은 곡식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한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돌보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돌보아 주는 봉사자가 될 것을 명하신다. 그의 백성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했고,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마 26:11). 이 말씀과 같이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돌보아 주어도 가난은 끊이지 않고 항상 반복되고 있으니 가난의 숙명론에 빠질

⁸ 시 10:14, 30:11, 118:7; 율 29:12; 대상 12:18.

우려가 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자연적인 가난보다는 억압이나 압제에 의한 인위적인 가난, 즉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 오는 비극적 가난을 뜻한다. 이 비극적 가난을 극복하는 길은 비극적 가난을 초래한 요인에 대하여 과감히 도전하여(to challenge the poor) 비극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을 숙명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가난을 영성화해야 한다. 가난을 영성화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난한 자(to be the poor)가 되는 일이다.⁹ 예수님도 부요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고후 8:9).

3) 섬김이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다. 아모스 선지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암 5:15). 온 세상이 밝은 사회가 되는 것이 섬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왜냐하면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은 계약의 백성, 즉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예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함이 성경의 교훈이다.

피차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선 소외된 이웃을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함을 뜻한다. 자기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는 섬기지 않

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이요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이다. 신약에서 디아코니아가 직분 또는 직책으로 번역되듯이 ‘아바드’란 뜻도 사도로서의 사도직, 교사로서의 교사직과 같은 말은 바 책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반한 셈이다. 그래서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 땅을 보수로 받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겔 29:19-20).

여기서 섬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과된 일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과하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므로(아바드)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에게 이집트 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다(렘 25:9, 27:6). 이스라엘의 적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작정된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 일이 신비스럽고 기이하다는 것이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⁹ 레슬리 호프, 『성서에 나타난 가난』, 나요섭 역 (나눔사, 1992), 213-215. 강사문, 『구약의 하나님』 (한국성서학연구소, 1999), 137.

섬김은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가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만일……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렘 38:17-18)고 하였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권면한 것이다. 예레미야의 언급은 매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방인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달리야도 같은 의도로 그의 부하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면했다(왕하 25:24). 당사자들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일 때는 그것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이사야 40-55장에는 익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해된다.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로 들려 쓰임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도구로서 사용됨을 의미한다(사 44:28). 혹자는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혹자는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자로 소명을 받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사 42:6-7).

4) 섬김이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종하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종하는 행위는 주로 제의 본문 속에 나타난다. 출애굽을 하려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다(출 3:12, 4:23, 7:16).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신 28:47; 시 100:2). 또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섬김이란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같은 어원이다. 영어의 service란 말이 히브리어의 ‘아바드’, 즉 ‘예배드린다’는 말에서 유래되고 있다. 약한 자를 돕고 섬길 때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없는 자를 도울 때 보다

더 공손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롬 12:1)이 곧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말과 어휘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고 한다.¹⁰ 왜냐하면 섬김은 하나님의 기본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지상과제이다.

한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고, 이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신 29:24-26). 하나님께 복종하고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섬김이다(출 21:6).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며, 결국 이방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렘 5:19, 17:4). 왜냐하면 이런 이방 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이다(신 28:48).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삿 3:8)과 모압(삿 3:14)과 암몬(삿 9:28)의 지배를 받은 것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다.

5) 섬김이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이다. 곧 복음 전파와 구원사역도 섬기는 일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61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

¹⁰ 박창환, “신약성경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18.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는 자”로 묘사되며,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 다시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6) 섬김이란 인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피조물까지도 섬기는 일

섬김이란 인간관계에서 인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까지도 섬기는 폭넓은 행위를 말한다. 창세기 2장 5절에 의하면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땅을 갈고 섬길(아바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섬기는 자’로 명령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아담의 임무는 동산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기본 임무는 자연을 살피고 청지기과 같이 돌보는 것이라는 뜻이다. 아바드란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관리하고 주인의 말씀에 따라 정원사처럼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말이다. 이런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생태계의 혼란과 자연질서 교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섬김의 현장

1) 라르슈 공동체의 섬김과 발 씻김

여기서는 섬김의 현장으로서 주어진 라르슈 공동체의 설립 목적과 섬김의 현장을 소개한 글 “봉사의 스캔들”을 간추려 쉽게 정리하려고 한다.

라르슈 공동체는 1964년 프랑스 트로슬리에 장 바니에가 세운 섬김의

공동체이다. 상송육구에 따라 성장하여 프랑스의 최고 지식인으로 정착한 저자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진리를 깨닫고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을 나누기 위해 설립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이다. 두 사람의 장애인과 같이 출발한 이 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발견한다. 저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소 험악한 요양원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두 장애인들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이 라르슈 공동체이다.

라르슈 공동체에서는 봉사자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이 봉사자들은 함께 사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 삶을 나눈다. 나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한테는 분명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라르슈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를 발견한다.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라르슈 공동체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다루며, 우리 안에 내재된 파괴력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 가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 우리 모두는 서로 더욱 깊이 연대하며 우정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 우리 자신을 닫아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힘과 마음도 닫혀 버린다.

라르슈 공동체 생활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을 바탕으로 한다. 관계란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신뢰하는 데서 시작됨을 깨닫고 있다. 친교는 서로 신뢰하며 존경을 나누는 자리이고, 겸손·개방성·연약함·재능·재산은 물론 가난함과 한계까지도 서로 나누게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만의 아름다움, 고유함, 마음속에 숨어 있는 빛,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새 희망을 주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 거절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셨다(눅 14:12-14).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발을 씻어 주는 행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든 것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내적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 준다. 우리는 라르슈 공동체에서 실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트로슬리에서 발 씻김 예식을 행하는 성목요일에 우리는 온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저마다 자신의 과거, 특히 지난해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둥글게 앉아 침묵 가운데 기도한다. 찬송가를 부른 후, 공동체 지도자는 요한복음 13장 1-17절을 봉독한다. 그런 다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 준다.

먼저 발 씻김을 받은 사람, 곧 섬김을 받은 사람은 발을 씻어 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들은 침묵하며 기도한다. 이어서 공동체 지도자가 앉으면 방금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 준다. 이 행위는 둥그렇게 모여 앉은 모든 이가 서로의 발을 모두 씻어 줄 때까지 계속된다. 봉사자가 장애인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장애를 지닌 사람이 봉사자의 발을 씻

어 주는 데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 예식은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몸짓으로 사람들 사이에 깊은 현존과 친교를 이룬다.

교파를 초월한 라르슈 공동체와 믿음과 친교에서 발을 씻어 주는 예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우리는 초교파적 종교 행위의 의미를 깨달아 살고 있음을 느낀다. 발 씻김 예식이 어떻게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비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다.

2)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씻김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한없이 낮아지고 연약해지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전까지는 매우 강한 사람처럼 보이신 예수님은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저주와 버림을 받은 죄인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위대한 메시아처럼 보였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유월절 축제가 다가왔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왜 예수님께 서 유월절 축제에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낮아지셔서 적대자들이 오히려 승리한 것만 같았다. 나약함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은 그의 성육신으로의 탄생부터 시작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예수님의 변민과 수난, 십자가형과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

요한복음 13장은 매우 엄숙하게 시작된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요 13:3-4).

이 말씀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나(막 1:7),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몸을 굽히셨다.

우리는 작고 가난해지신 예수님 앞에 있다. 그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를 내려가 맨 끝자리, 곧 종이나 노예의 자리를 취하신다. 엄숙했던 유월절 식사 도중 예수님이 일어나 겹옷을 벗으셨을 때 놀라던 제자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았을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걸까?”

신약성경을 보면 겹옷과 속옷에 대한 말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집 안에 편안하게 있을 때 이 속옷을 입지만 외출할 때나 손님을 맞을 때는 겹옷을 입었다. 하지만 노예들은 겹옷을 입지 않고 속옷이나 작업복만 입었다. 옷은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의 지위나 역할을 드러낸다. 옷은 정체성과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아무 위엄이나 권위가 없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겹옷을 벗으신 이 행위에는 깊은 내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겹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1, 15, 17, 18절에서 ‘내놓는다’와 ‘얻는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얻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겹옷을 벗으신다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을 뜻한다. 예수님은 겹옷을 벗으시듯이 자신의 존재는 물론 어떤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마저 훌가분하게 벗어 버리시고 친구로서 등장하신다.

삶을 끝마칠 무렵 우리는 우리가 입은 옷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가면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모습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겹옷을 벗으시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하신다. 그것은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내리막길을 취하여 자신의 영광을 숨기시는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삼위일체적 마음과 사랑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무한하고 초월적이며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유한한 운명과 한계를 지닌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분은 그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친구, 즉 온 인류에게 사랑받는 분으로 알리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화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상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다. 자신의 겹옷을 벗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누는 친교에 장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쪽으로 밀어내심을 의미한다(요 15:15).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요 13:4-5). 그러나 제자들은 거부한다. 어찌면 우리 역시 이처럼 거부할지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빨거나 집 안을 청소해 주신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입장을 취하시면서도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신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도록 내맡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친구가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무언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래

서 출신 성분·자질·능력을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 주려고 한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죄만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고통에 이르는 사랑의 길이다.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며 친구들을 향한 철저한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내신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담긴 예기치 못했던 힘과 엄숙함 앞에 베드로는 굴복한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자신을 연다. 예수님과 결별하는 일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친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다(요 13:9-10).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요 13:12-17).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각자에 대한 당신 사랑을 표현하시며, 겸손한 봉사가 당신 메시지의 핵심임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도록 내맡겨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역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이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동하라고 당부하신다.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단언하신다(요 13:17).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참 행복은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다. 참 행복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누가복음 6장 20-2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너희가 형제자매들의 발을 씻어 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인, 절뚝거리는 사람과 눈먼 사람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려면, 곧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다정하려면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 그분의 몸과 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없이는 그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3) 발을 씻어 주는 행위의 의미

예수님은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발 씻김은 오로지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이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비전, 온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 주신다. 발 씻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요약해 준다. 행동은 말보다 더욱 큰 소리로 말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마 18:1-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

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며, 지도자는 종 이 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주어진다. 각 사람은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이들이 사랑을 끌어들이 빛을 발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지금 여기 이 땅 위에 현존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참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지상 교회를 위해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격이요 스캔들이다. 그들은 이 행위를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 철저한 패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인간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신 예수님은 그 폭력을 온유와 용서로 바꾸신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문을 여신다. 그분은 당신이 진정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지 보여 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인간이 보기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라며 당신 손수 보여 주신 본보기를 따를 것을 요청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통해 사랑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친구로 삼으신 제자들을 부르신다.

예수님은 이미 한 여인의 눈물과(눅 7:36-50)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져온 값비싼 순 나드 향유로(요 12:1-8) 당신의 발을 씻게 하셨다. 그분은 분명 이 행위에 담긴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하려고 하셨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저마다 예수께 발을 내어드린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친밀감을 나누고 있음을 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아니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과 용서를 상징한다. 물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선하게 만들며 생명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아래로부터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주인이나 윗사람처럼 높은 곳에서 용서하는 분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마음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표시로 그들의 발에 있는 때를 씻어 주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후에 배신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으시며 미리 그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제자들의 권위에 대한 남용을 씻어내시고, 권력을 얻어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정화시키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착한 목자의 자질을 묘사하시면서, 착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하신다.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사명뿐 아니라 내면의 상처까지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이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종종 커다란 능력과 확신에 차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순종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가치와 사명을 깨닫도록 도우셨을 뿐이다. 예

수님은 공생애 동안 지니셨던 권위를 부인하거나 버리시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며 확고하고 분명하게 권위를 행사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치에서 또 하나의 길, 곧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새로운 겸손과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길을 보여 주신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취하여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논리이다. 당신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해지신다(빌 2장).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을 향해 사랑과 연민의 몸짓을 보이신 예수님은 더욱 가난해지신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울부짖으신다. 전능하신 분이 무력해지신다. 예수님은 종이나 노예처럼 되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신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 숨어 계신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 세상의 맨 밑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는다. 지도자들이 가난할 때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구하려 들지 말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친구이기도 하다.

4) 드러난 베드로와 유다의 본래의 마음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와 정반대되는 두 명의 주인공, 바로 베드로와 유다가 있다.

(1) 베드로의 혼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려는 모습을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정치와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있었고, 맨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의 자리는 누구나 기댈 수 있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웬지 강해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하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베드로는 무너지고 만다. 하인이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한다. 베드로는 반항한다. 예수님이 그를 배반하셨기 때문이다. “종이나 노예처럼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모독하도록 스스로를 내놓는 메시아라니! 이건 너무 부조리해! 스캔들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요 6:54-56).

이것은 5천 명을 먹이신 후 군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신 말씀이다. 군중은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발상에 충격을 받고 분개한다! 모두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신다면 베드로 역시 종처럼 작고 연약한 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의 발을 씻고 그 중심

에 연약한 이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 곧 새로운 사회를 세우라고 요청 받은 것이다. 베드로는 종 가운데 으뜸가는 종이 된 것이다.

(2) 유다의 배반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동안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긴장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유다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랑의 친교를 이루라고 부르시는, 나약하고 온화하고 무력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 수 없다. 그는 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힘을 나눠 자기 몫을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베드로 역시 같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이 사랑과 친교를 이루라고 초대하셨을 때,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닫아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랑과 친교에 대한 유다의 반발은 그의 내면에 심리적이고 영적인 장벽이 심각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선택에서 필수로 마음을 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부르심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발 씻김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과 같이 하나의 신비이다. 예수님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겹옷을 벗어 버리라고, 참 자아를 감추고 있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세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라고 당신 친구들을 초대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복음의 어리석음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연민을 느끼며 용서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신다. 또한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요 복이라고 단언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자매의 발을 씻어 주는 것, 또 누군가 우리의 발을 씻어 주도록 내맡기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표시이다. 이것은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찾기 위해 내리막길을 취하고 싶다는 표징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ACT(수용전념치료) 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The Introduction of ACT: With the Christianity

■ 김동연 Kim, Dong Yeo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Th. 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M. A.)
 - 육군 리더십 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주여,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변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묵상(명상: 이후 묵상으로 표기)치료가 최근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국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데, 묵상치료가 41.4%, 인지행동치료가 68.8%, 정신역동이나 정신분석이 35.4%로 나타난다. 이것은 미국에서 인지행동치료가 대세이고, 묵상치료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내에서는 아

직 이런 조사연구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 역시 묵상치료가 점차로 관심 받고 있는 소개의 단계에 있다고 본다. 수용 및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의 경우도 국내에 소개되는 단계에 있고, 번역서나 소개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ACT를 소개하고, 특히 그 주요기법으로 사용되는 마음챙김(mindfulness: 이후 ‘마음챙김’으로 표기)이 어떻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ACT는 행동치료의 역사에서 보면 행동치료, 인지치료에 이어서 나타난 제3세대에 해당된다. 제1세대는 1950년대에 활성화된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치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정서를 학습으로 설명하면서 강화나 체계적 둔감법과 같은 이완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인지치료는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자극과 반응의 조건화보다는 주로 사고작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동사고와 비합리적인 신념을 발견하여 그것을 수정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1990년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제3세대는 동양의 묵상기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병리적인 측면을 요소보다는 전체, 분석보다는 통찰적 문맥을 강조한 점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이후 ACT로 표기)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제3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접근법들 중 하나이다. 행동치료의 동향은 크게 3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¹

헤이스(Hayes), 루오마(Luoma), 본드(Bond), 마스다(Masuda), 릴리스(Lil-

¹ S. C. Hayes, V. M. Follette & M. M. Linehan, *Mindfulness and Acceptance: Expanding the Cognitive-Behavioral Tra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4), 12.

lis, 2006)는 전통적인 행동치료를 제1세대로, 전통적 인지치료와 인지·행동치료(CBT)를 제2세대로 그리고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을 두는 접근법들을 ‘제3세대’로 언급하고 있다. 제1세대의 행동주의가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간의 사적 사건들(private events)은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제2세대의 인지치료는 행동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사적 사건들을 인지과정과 같은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고, 그 인지과정의 왜곡을 치료 목표로 삼는다. 행동치료나 인지치료는 부정적인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경험하기보다는 변화에 역점을 두고,²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의 전략에서는 불안을 통제하거나 불안을 야기시키는 생각을 바꾸려는 치료적인 전략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전략은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불안에 대한 통제나 회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문제의 본질로 본다.³ 이런 점에서 제3세대의 행동치료에서는 통제보다는 수용, 학습보다는 묵상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한다.

최근에 이런 제3세대에 해당되는 MBSR이나 MBCT 및 DBT 등 묵상에 기반을 둔 행동치료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반면, 인지행동치료의 제3세대에 속하는 알아차림 스트레스 관리(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Dialectical Behavior Thera-

py), ACT 등과 같은 치료법들은 행동과학에 기초한 마음챙김 기반의 치료(mindfulness-based therapy)로서 경험을 수용하고 현실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마음챙김을 사용한 접근법들은 요가, 명상, 선 등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현대에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ACT는 지난 15년간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불안,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 강박증, 분열증, 경계선 성격장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만성통증, 중독회복, 금연, 당뇨병 등의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소논문에서는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수용 및 전념치료(ACT)에 한정해서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묵상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방식으로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독교와 만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용전념치료(ACT) 개괄

ACT는 제목의 의미처럼 수용(acceptance: 이후로 ‘수용’이라고 표기)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하는 심리치료의 한 방식이다. ACT는 주로 공황발작, 광장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강박증, 범불안장애와 같은 불안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험적인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적응적 행동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적인 상황도 아닌데 과민하게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설사 그런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을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삶에 대해서 대부분 융통성이 없고 매우 경직되어 있어서 쉽게 위축되어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높다.

² 문현미,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수용전념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2006), 27-31.

³ G. H. Eifert & J. P. Forsyth,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for Anxiety Disorders: A Practitioner Treatment Guide to Using Mindfulness, Acceptance, and Values-Based Behavior Change Strategie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2005), 92-102.

그래서 ACT는 불안의 병리적 증상을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려 하거나 혹은 도피와 회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불안으로부터의 회피는 매우 성공적인 전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에 더욱 고착시켜서 불안 자체로부터 더욱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닥쳐올 상황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상상과 회피행동을 해보지만, 이런 걱정행동은 그 자체로 불안을 더욱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병리적인 증상을 부정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환자나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ACT는 먼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용하게 하고, 둘째는 현재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는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크게 3단계의 목표를 제시한다.⁴ 제1단계는 사고와 감정을 받아들이기(accept thoughts and feelings)이다. 이것은 바로 생각과 감정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 특히 원치 않는 불안, 고통, 죄책감, 부적절감 등을 갈등하거나 저항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단계에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choose directions)이다. 현재 정말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삶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가치 있는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제3단계에서는 행동을 취하는 것(take action)이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 자신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수용’, ‘가치선택’ 그리고 ‘행동’이 ACT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핵심 과제임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가치선택과 행동변화는 동일한 범주로 묶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CT의 핵심 목표는 ‘묵상에 의한 수용’과 ‘가치선택에 따른 행동변화’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런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적 기술로서 구체적으로 6가지의 중요한 과제, 육각형(hexaflex) 모델을 제시한다. ‘묵상에 의한 수용’의 과정은 수용, 탈융합(defusion), 문맥으로서의 자아(self as context) 등 3가지의 전략이 제시되고, ‘가치선택에 따른 행동변화’는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 가치탐색(values), 행동전념(committed action) 등 3가지가 예시된다.⁵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현재의 접촉, 수용, 가치탐색을 할 수 있고, 제2단계에서는 탈융합, 행동전념, 문맥으로서의 자아를 탐구할 수 있다. 이것은 ACT의 핵심적인 6가지 접근방식이다. 제1단계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묵상[명상: 마음챙김에 의한 수용과정(acceptance process)]으로 이해한다면, 제2단계는 전념(commitment)에 의한 행동변화(behavior change processes)의 과정이다. 전자가 묵상적 측면에 가깝다면, 후자는 보다 행동적 측면에 근접한다. 이들의 주요 치료전략을 간단하게 살펴 보자.

첫째, 먼저 회피로부터 수용 전략을 살펴보면, ACT에서는 내담자나 환자의 병리적 특징을 불안이나 걱정으로부터 회피나 통제로 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감정적인 통제나 회피의 패턴, 방식을 탐색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수용을 학습시킨다.

예를 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상처받았던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 않기에 강박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많은 행동들을 한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X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미 벌써 X에 주의를 두고 더욱 X를 불러

⁴ Ibid., 77-82.

⁵ S. C. Hayes & K. D. Strosahl, ed., 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Inc., 2004), 31-58.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⁶ 그 어떤 X를 회피하려는 걱정이나 상상이 오
히려 함정, 덮이 되어서 더욱 그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갇힌
사람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더욱 안으로 파고드는 형국이 된다.
열심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그는 더욱 경직되고, 더욱 근
심이 늘어나고, 더욱 불안해진다.

여기서 ‘웅덩이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수용’을 권한다. 수용은 불
안을 회피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담자나 환자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피와 통제의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불안과 회피의 전략이 효과
적이지 못함을 자각하게 한다. 이것을 ‘창조적 절망’ (creative hopelessness)
이라고 한다. 창조적인 절망은 웅덩이 갇힌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방법을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담 초기에 중요
한 기술이다. 내담자는 창조적인 절망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그 자체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융합으로부터 탈융합(defusion)의 전략이다. 대부분 불안을 가
진 내담자는 불안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이유나 변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장애를 가진 내담자는 정말로 가치 있고 필요한 활동을 회피
하는데, 이때 그들은 필요 없는 이유를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
거나 탓하게 된다. 이것은 주로 경험적 회피(experiential avoidance)와 인지
적인 혼란(cognitive fusion)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들은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
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ACT에서는 사건과의 관계, 혹은 문맥에서 비
롯된다고 본다. 특히 이런 문맥이론에서 보면, 인지치료에서 그런 부정적
인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

⁶ S. C. Hayes, op. cit., 121-129.

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알아차림(마음챙김과 탈융합)의
전략이다. 이것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회피와 언어적인 규칙에서 비롯
된 인지적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울증환자가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좋은 일이야”⁷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은 인지적 융합을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분리되는 사건상황에
개입된 개인적인 경험맥락을 분명하게 자각함으로부터 분리, 벗어남이
생겨난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의 경험에 대해서 둔감화되어 객관화되
는 것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임을 자각하게 된다.

셋째는 개념적 자아로부터 문맥으로서의 자아(self as context)에 대한 자
각이다. 문맥으로서의 자아란 개념화된 자아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을 말
한다. 개념화된 자아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자아개념이다. 나
는 전문가이다, 나는 바보다, 나는 희생자에 불과하다, 나는 돈이 필요하
다 등과 같이 언어적인 개념에 의해서 파악된 자아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응되거나 형성된 까닭에 유용하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불안감을 안겨다 준다. 반면에 문맥적인 자아는 고착되
고 굳어진 지식에 의해서 파악된 자아가 아니라 문맥에 의해서 매우 융통
성이 있는 자아로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관찰할 수 있는 안전
하고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자아를 말한다. 문맥적 자아는 저기보다는 여
기, 과거나 미래보다는 지금을 강조하는 자아의식을 말한다.

넷째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이다. 이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환자나 내담자의 정
서가 대부분 시간을 과거나 미래의 경험에 집착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현재’에 접촉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난다고 본다. ACT에서는 개념화된 과
거나 미래로부터 현재로 되돌아오고, 현재에서 의미 있는 행동, 활동을

⁷ Ibid., 12.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삶이란 그것이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현재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 현재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임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이런 자각은 환자나 내담자로 하여금 미래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삶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 알아차림 목상을 통해서 현재에 머물러서 충분히 경험을 느끼고, 설사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그 자체로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가치결여로부터 가치탐색(values)이다. 여기서 가치는 매우 일상적인 의미이다. 이를테면 친구가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볼지를 걱정하다가 결국은 포기한다고 할 때, 가치탐색을 할 수가 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이 문제인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면서 실질적으로 희생되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탐색한다.

여섯째는 충동적 반응으로부터 행동전념(committed action)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삶의 나침반을 설정하였으면, 그것들의 장애들을 잘 통찰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생각과 행동을 구분한다. 생각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행동은 실질적으로 불안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설거지와 같은 매우 일상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숙제와 같은 학습 활동이나 아니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포함한다.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털고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6가지 주요 치료적 전략은 결국은 목상에 의한 수용과 가치 선택을 통한 행동변화로 요약된다. 이때 목상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6가지의 치료적인 전략에서 목상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여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정이다. 그러면 ACT에서 목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3. 마음챙김(Mindfulness)

일반적으로 마음챙김은 팔리어 사티(sati)의 영어 번역어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마음챙김은 sati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집중목상인 사마타(samatha)나 통찰목상으로 분류되는 비파싸나(vipassana)의 의미로 사용할 만큼 매우 융통성 있고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심리치료자들은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고 창조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만큼 마음챙김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그러므로 불교적인 수행론적 관점과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마음챙김’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일단 마음챙김은 불교의 sati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sati의 번역어는 기억, 알아차림, 주의집중, 마음챙김 등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일단 sati의 개념을 선구적으로 심리치료에 적용한 존 카바트 진(John Kabat-Zinn)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음챙김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는 ‘마음챙김’이란 개념을 ‘주의력의 조절’과 불교 수행의 ‘팔정도’(八正道)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마지막으로 법의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조작적인 정의로서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주의를 두는 자각(awareness)”으로 규정한다.⁸ 또한 최근에 논의된 불

교학자 존 던(John Dunne)의 정의를 중시한다. 여기에 따르면 ‘마음챙김’의 구성요소로서 기억과 재생을 의미하는 sati, 철저한 앎과 바른 이해를 의미하는 삼파자나(sampajanna), 방일하지 않음이나 주의 깊음을 의미하는 아파마다(appamada)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마음챙김’은 단순히 sati의 번역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존 카바트 진에게 ‘마음챙김’은 팔정도과 같이 불교 수행의 전반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 심리치료자들은 ‘마음챙김’을 Medita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마음챙김’을 일차적으로는 ‘묵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번역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넓은 의미로서 사용된 ‘mindfulness therapy’⁹라는 경우는 미술치료나 인지치료처럼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묵상치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수행이나 심리치료에서 기술적 의미로서 sati의 번역으로 ‘마음챙김’이 사용된 경우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반면에 대상에 머문 상태를 의미하는 samatha 수행은 ‘집중묵상’으로, 대상의 변화를 지켜보는 vipassana 수행은 ‘통찰묵상’으로 번역한다.

ACT에서는 직접적인 묵상의 도구로서 주로 ‘알아차림’(마음챙김)과 ‘문맥으로서 자아’(self as context)라는 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맥적 자아론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마음챙김 연습으로 건포도 먹기 →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묵상 → 호흡묵상 연습 → 생각과 느낌 알아차림 연습 등의 순서로 묵상훈련을 실시한다.¹⁰ 여기서 사용되는 건포도 먹기묵상,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묵상, 호흡

묵상 연습 등은 MBSR에서 사용되는 방식이고, 생각과 느낌 알아차림 연습은 MBCT에서 ‘3분 묵상’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DBT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챙김을 전통적으로 불교묵상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평화, 선정이나 심리적 현상에 대한 통찰, 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ACT에서는 ‘마음챙김’을 ‘자각’(awareness)과 판단 없는 ‘수용’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6가지 주요 치료전략인 육각형(hexaflex) 모델에 연결시킨다. 이를테면 과거 경험에 붙잡힌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에 접촉을 하게 하거나, 개념적인 자아에서 문맥적인 자아를 경험하게 하거나, 언어적인 인식에서 탈융합(defusion)과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음챙김 연습을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 ACT에서의 가장 핵심 되는 치료전략은 결국 ‘마음챙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마음챙김 연습이 직접적으로 가장 잘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에 접촉하기(contact with the present moment)의 전략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그 묵상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음챙김 연습은 현재의 특정한 경험 대상에 주의를 두는 지각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의는 개념적인 이해를 벗어나 경험 대상에 의도적으로 머물러서 그 사물을 존재하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호흡묵상을 하는 수행자가 다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 있다가 다시 호흡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관점은 ‘현재’라는 시점이다. 대부분 우리는 과거

⁸ F. Didonna, ed., *Clinical Handbook of Mindfulness*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2009), 11-23.

⁹ Ibid., 24.

¹⁰ R. D. Zettle, *Act for Depression: A Clinician Guide to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Treating Depression* (Oakland: New Harbinger, 2007), 140-157.

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몰두하거나 혹은 물들어 현재를 놓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환자나 내담자의 고통은 바로 과거의 특정한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ACT의 목표는 개인의 역사에서 비롯된 감정, 생각 등과 싸우는 것을 내려놓고, 살아 있는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념화되고 경직된 자기로부터 보다 유연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마음챙김’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두고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새소리를 듣거나 향기를 맡거나 아니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느낌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자각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풍부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일차적으로는 일어나는 현재의 경험을 그 자체로 알아차리고, 다음으로는 그 현재에 머물고, 마지막으로 그 순간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¹¹ 이런 훈련이 없으면 다른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가슴의 어떤 감정에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쉽게 노출된 환자나 내담자에게는 구조화된 훈련이 필요하다.¹²

대표적인 구조화된 마음챙김 연습은 ‘강물의 나뭇잎’이란 연습이다. 이것은 생각을 바라보게 하는 연습으로, 눈을 감고 시작을 한다. 내담자

는 강둑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본다. 강물 위에는 나뭇잎이 떠내려간다고 상상하기를 요청받는다. 그리고 치료자는 환자에게 떠내려가는 나뭇잎 하나하나에 생각을 조용하게 두라고 말한다. 만약 내담자가 생각에 걸려 있거나 생각을 관찰할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안다면, 내담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곧 생각을 나뭇잎 위에 두는 것에 되돌아오고, 강물에 그것들이 흘러감을 허용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관찰하는 연습이다. 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내담자를 안내한다.

숨을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으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얼마간 보다 깊게 호흡을 하시고, 점차로 평소대로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이 어떤 들판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풀도 있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푸른 하늘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여러 종류의 구름이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요술처럼 구름에 묻혀 있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낱말이나 이미지로서 구름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구름 자체는 당신 생각의 이미지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일어나는 각각의 생각을 구름에 묻고 그것들이 조용히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름의 이미지를 놓쳤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사실을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 판단하지 말고 단지 조용하게 누워 있는 자신의 등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생각들을 구름에 묻으면서, 그럼 이제 나는 조용하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 연습을 해보세요. 단지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써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에, 혹은 그 위에 두도록 하세요. [잠깐 멈춤]

¹¹ 인경, 『염지관묵상』 (서울: 묵상상담연구원, 2005), 120.

¹² J. B. Luoma, S. C. Hayes & R. D. Walser, Learning ACT: A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kills training manual for therapists (Oakland: New Harbinger Publication, 2007), 214-221.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생각을 놓치거나 당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당신의 등 쪽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춤]

자, 이제 당신이 누워 있는 들판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당신은 이제 당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¹³

이것은 구름에 생각을 떠나보내는 연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이 생각을 나뭇잎에 실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발생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으로, 요점은 구름이나 나뭇잎처럼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연습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습이다. 우선적으로 강물과 나뭇잎, 혹은 하늘과 구름을 떠올려야 하고, 다음에는 생각을 자각하여 그것을 나뭇잎이나 구름에 붙여야 하는데, 바로 이 단계가 어렵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은 대부분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곧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구름이나 나뭇잎에 가지고 가기 전에 소멸되어 선명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오히려 그냥 생각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마음챙김 연습이 아닌가 한다. 설사 생각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생각을 알아차리면 곧 호흡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CT에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 기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생각을 구름이나 나뭇잎에 붙이려는 노력이 상당히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까닭에 실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다.

4. 주요 치료기법

일반적으로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개인적인 자아(self)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통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자존감(self-esteem)이 낮은 까닭에 자아를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나는 실패자다’,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바보야’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자아관을 보다 융통성이 있는 성공적이고 낙천적인 수준으로 건설하는 것, 그래서 ‘나는 실패를 할 때도 있지만, 성공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심리치료의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불교심리학에서는 무아(無我)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아의 강화가 오히려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약한 자아와 강한 자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한 자아는 사실 약한 자아를 기반으로 성립되고, 약한 자아 역시 강한 자아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들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한쪽의 강화는 결국 역설적으로 다른 쪽을 잉태한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없다. 높은 자존감은 역설적으로 쉽게 상처를 받는 약한 자아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ACT에서 자아를 개념적 자아(self as concept), 과정의 자아(self as process), 문맥적 자아(self as context) 3종류로 분류한다.¹⁴ 혹은 개념적 자아는 내용으로서 자아(self as content), 과정적 자아는 현재의 자기-자각(ongoing self-awareness), 마지막으로 문맥적 자아는 관찰하는 자아

¹³ Ibid., 146.

¹⁴ J. V. Ciarrochi, A. Bailey & S. C. Hayes, A CBT Practitioner's Guide to ACT: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2008), 69-70.

(observing self) 혹은 관점의 자아(self as perspective)로 부르기도 한다.¹⁵

개념적 자아는 ‘나는 감정색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혹은 ‘나는 네 니스를 즐기는 사람이다’와 같이 기질, 가치, 습관,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개념화된 자아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의해서 드러난다. 자존감은 바로 개념적 자아와 관련된다. 치료자가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내담자에게 강조하면, 환자들은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느낄 수가 있다. 높은 자존감이 기준이 되어 낮은 자존감을 배제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인지적인 오류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ACT는 치료의 목표를 개념적 자아보다는 과정의 자아나 문맥적 자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과정적 자아’는 내적인 경험을 관찰하고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입니까?’, 혹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의해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혹은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와 같은 것이 과정으로서의 자아이다.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 혹은 내적인 경험으로 그대로 묘사하게 한다. 과정의 자아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챙김 연습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다. 판단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훈련은 바로 과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맥적 자아란, 개념이나 내용으로서의 자아와 과정으로

서의 자아를 모두 포괄하는, 아는 것을 아는 어떤 위치나 관점을 의미한다. 이것의 이론적 기초는 관계구조이론(relational frame theory)에서 온다.¹⁶ 쉽게 말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맥이란 낱말의 의미를 결정하는 전후 관계를 말한다. ‘말’이란 낱말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낱말 자체보다는 그 낱말이 관계하는 문맥에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독립된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적인 교설로는 ‘인연’(因緣)이나 ‘연기’(緣起)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ACT에서는 대개 이것을 체스보드에 비유하곤 한다. 감정색과 하얀색의 체스가 있고, 이들은 보드 위에서 게임을 한다. 하지만 보드 자체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검은색의 체스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하얀색의 체스도 아니다. 그러면서 보드는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판 자체로서 문맥이다. 문맥적 자아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를 제공한다. 이런 문맥적인 자아로 인하여 개념적 자아와 과정적인 자아가 유지된다. 문맥적 자아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수용과 탈융합에 나아가는 길목이 된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자아는 불교 전통과 비교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유사한 교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유식불교에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에 상응한 것처럼 보인다. 개념적 자아는 집착된 자아로서 대상을 개념화하거나 영속적인 특질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과정적 자아는 의타기성과 연결된다. 이것은 인식과 대상의 상호관계에서 알아차림은 발생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마지막의 문맥적 자아는 무아와 상통한 의미로¹⁷ 근본적인 바탕, 장소로서의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원만한 성격을 가진 점에서 원성실성이라

¹⁵ M. P. Twohig & S. C., Hayes, ACT Verbatim for Depression & Anxiety: Annotated Transcripts for Learning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Oakland: New Harbinger, 2008), 213-221.

¹⁶ S. C. Hayes, V. M. Follette & M. M. Linehan, op. cit., 34-42.

¹⁷ Ibid., 139.

고 말할 수가 있다.

이들은 상담상황에서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내담자가 개념적 자아에 집착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경험에 접촉하게 하여 과정적 자아를 자각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안전한 공간으로서 무아를 의미하는 문맥적 자아를 깨닫게 도와준다. 이들은 유식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새끼줄 비유로 보면,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집착경험을 나타내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뱀이 아니고 새끼줄임을 현재에서 자각하는 것은 의타기성(依他起性)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진실경험의 순서를 가진다.¹⁸ 이것을 ACT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유식불교에서 집착경험에서 관계경험으로 그리고 진실경험의 과정으로 흐르듯이, ACT에서는 개념적 자아에서 과정적 자아로 그리고 문맥적 자아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개념적인 자아에 집착하여 고통을 받기에 곧장 무아의 문맥적 자아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집착된 개념적 자아의 내용을 인식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에서 경험한 과정적 자아에 접촉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문맥적 자아에 이르게 하는 상담절차이다.

한편으로 세 개의 자아에 대한 접근법에는 각 단계마다 다른 방식이 요청된다. 개념적 자아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관점이기에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반면에 과정적 자아는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서 현재에 접촉할 수 있게 하며, 마지막 문맥적 자아는 체스게임과 같은 비유법을 활용한 간화선과 같은 문답법이 유용하다.

간화선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든지 혹은 ‘무엇이 나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물론 이런 질문이 반드시 간화선의 방식이라고 하기

엔 무리가 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질을 나타내는 질문인 까닭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ACT에서는 문맥적 자아로서 대답한다.¹⁹ 이것은 대개가 체스게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다. 이것의 문답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상담자: 여기에 체스보드가 있습니다. 체스는 하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들 체스는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귀족도 있고, 성주도 있고, 병사들도 있습니다. 하얀색의 체스는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느낌이나 좋은 기억들입니다. 반면에 검정색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느낌들이나 기억들입니다. 이들은 보드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당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담자: 그래요. 마치 나 자신과 같아요. 나는 지금 내부에서 늘 전쟁 중입니다.

상담자: 검정색 기사가 공격합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입니다.” 그러자 하얀색 여왕이 “나는 나의 아이들을 잘 돌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검정색 귀족이 “실제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자 하얀색의 기사가 “나는 떠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검정색의 여왕은 “아니, 너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 결국은 다시 돌아올걸” 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내담자: 그래요. 맞아요. 정확하게 나의 이야기예요. 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 전쟁은 계속될 것만 같아요.²⁰

상담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과 싸워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체스가 아닐 가능성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은 보드

¹⁸ 인경, “불교영성과 묵상치료”, 『묵상치료연구』(서울:한국묵상치료학회, 2007), 29-30.

¹⁹ J. B. Luoma, S. C. Hayes & R. D. Walser, op. cit., 109.

²⁰ Ibid., 198.

위의 체스와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내답자: 체스?

상담자: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동시에 체스일 수가 있죠?

당신은 당신의 차를 가졌지만, 차가 당신이 아닌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당신은 누구이죠?

내답자: 게임하는 사람?

상담자: 우리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게임하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당신이 체스를 움직이려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게임하는 사람 이외에 무엇일 수가 있죠?

내답자: 보드?

상담자: 네,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보드가 없이는 체스들은 체스로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보드는 체스를 가지고 있고, 체스가 체스일 수 있도록 그 문맥을 제공합니다. 이상한 질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내답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자: 그래요. 만약 당신이 보드가 된다면, 당신은 전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스가 된다면 그 전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²¹

여기서의 비유적인 문답은 매우 중요한 시점을 제공하여 준다. 여기서 환자나 내답자에게 ‘당신은 누구인가?’ 라든지 혹은 ‘무엇이 나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그런 생각과 느낌의 근거가 되는 바탕 자체(自體)를 묻는 것이다.

이런 질문은 간화선의 창시자로 알려진 대혜종고의 문답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이다. 이때는 체스게임이 아니고 바둑이 등장한다. 이참정과 조대

체는 자주 만나 바둑을 두는데, 대혜가 이 사실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바둑이 흑백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나아가, 바둑판을 다 흐트러뜨리고 한 수를 놓는다면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묻는다.²² 이것은 체스 게임의 비유와 너무나 닮은꼴이다. 바둑알은 느낌이나 생각 혹은 기억들이다. 이것들은 서로 엉키어 전쟁을 치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으로 나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나인가?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일시에 쓸어버리고 한 점을 놓는다면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런 맥락적 자아의 개념은 선문답이 가지는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5. 기독교적 접근

앞서 소개했듯이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란 제3세대 인지심리학이라 알려져 있다. 인지행동주의 상담학의 1세대는 스키너(B. F. Skinner)를 중심한 행동주의 심리학, 2세대는 엘리스(A. Ellis), 벡(Aron Beck) 등을 중심한 인지심리학을 의미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문제를 이루는 행동과 생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 1세대, 2세대 인지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제3세대 인지심리학자들은 문제를 이루는 행동이나 생각의 교정보다 이런 문제행동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이들에게 인간이 가진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는 ‘감정 공포증’(emotion phobia)이라고 해석된다.²³

예를 들어, 발표 불안과 같은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²² Ibid., 77-83.

²³ Jason B. Luoma, Steven C. Hayes & Robyn D. Walser, 『수용전념치료 배우기』, 영희, 유은승 외 1명 역 (서울: 학지사, 2011), 127.

²¹ R. D. Zettle, op. cit., 150.

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못난 자신, 부끄러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거리를 두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피하고 싶은 감정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좀 부끄럽고 떨리지만 내가 이해하고 아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을 둘러싸던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수용전념치료의 전반부 과제, ‘수용’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표 불안에 떠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도록 만들까? 이에 대한 답이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면서, 수용전념치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을 찾는 것이다.²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이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감정—수치감, 불안감, 우울 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전념치료의 후반부 과제인 ‘전념, 헌신, 투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발표를 할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인생의 필연적인 목적이 있어서이다. 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행평가 점수를 높이고 싶거나, 회사에서 맡은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시켜 더 좋은 승진 기회를 갖기 위해서일 수 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떨리지만, 꼭 전해 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삶에 꼭 붙들고 싶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이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불안하지만, 때로는 무력하거나 우울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무서워하는 그 행

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전념치료에서 ‘전념하는 행동’은 보통 ‘자신의 문제 행동’이 된다. 공황장애 환자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이 죽을 만큼 겁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꼭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은 뒤에는 외출을 강행하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환자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하늘을 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새로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가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난 정말 끝장인데’ 하는 성공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수용전념치료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고통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느껴지는 그대로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괴로움=고통+통제의 노력’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기도 한다.²⁵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면 참을 만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이는 만큼 괴로움의 크기도 더해진다는 것이다.²⁶

그렇다면 수용전념치료를 기독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이 한계를 가진 죄인임이 부끄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 평생을 걸고 하고 싶은 나

²⁴ 김주환,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 2010), 47.

²⁵ Frank L. Gardner & Zella E. Moore, 『명상을 통한 수행역량개발: 마음챙김 수용전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2011), 78-84.

²⁶ Robert D. Zettle, 『우울증을 위한 ACT: 우울증 치료에 활용하는 수용전념치료 지침서』 (서울: 학지사, 2013), 31-37.

의 소명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자신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담기법이 이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겪어 보는 것이다. 단,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힘들어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일반 수용전념치료 가들에게 이 부분은 전혀 설명될 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부분이다).

셋째, 자신의 삶의 가치, 즉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군인, 주부, 학생, 선생, 전도사, 목사, 사모,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아들, 딸, 사위인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일까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듣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충성되게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람들, 즉 우리 장병들을 위해 묵묵히 우리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도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아니,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소명을 맡기신 우리들과 함께 친히 능력을 더하시며 함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6. 마치며

현재 육군 군종병과에서는 수용전념치료(ACT)를 기반으로 한 ‘비전캠프

프 3세대’를 출시예정 중이다. 이에 발맞추어 관련 내용들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일은 무척 기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오는 신세대 장병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의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육군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군종병과가, 또한 그 안에 군종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ACT는 목상을 수용 및 판단 없는 자각으로 정의한다. 이런 정의는 불안장애를 가진 장병들에게 맞추어진 조작적 정의가 될 것이다. 군에서 불안장애를 겪는 장병들은 불안을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CT에서는 이런 목상에 기반하여 회피 → 수용, 융합 → 탈융합, 개념적 자아 → 문맥적 자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 현재에 접촉하기, 가치결여 → 가치선택, 충동적 반응 → 선택행동으로의 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제1단계로서 수용, 탈융합, 문맥으로서의 자아와 제2단계로서 현재의 접촉, 가치탐색, 행동전념으로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룬다.

이런 과정 가운데 목상과 직접 관련된 기법은 마음챙김과 기능적 문맥 이론이 채택된다. 마음챙김은 먹기목상, 걷기목상을 포함하고, 특히 생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강물의 나뭇잎이나 하늘의 구름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구조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문맥적 자아(self as context)는 개념적 자아, 과정적 자아, 문맥적 자아를 순차적으로 통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위의 내용들은 불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가 반기를 들고 그것에 반감을 가진 채로 알아보지도 않는다. 참 어리석은 연구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ACT에서 말하는 수용부분이 흡사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용납과 용서와 연결되고, 전념부분은 부활을 통한 새 삶의 시작에 비유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도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Theological Problems in Korea Churches

안명준 Ahn, Myung Jun

- 합동신학대학원(M. 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 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 M.)
- 남아공 University of Pretoria(Ph. 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현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다. 80년대의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이제 교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큰 도시의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소형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모습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이후에도 그 분명한 대안을 갖지 못하면서 더욱더 흔들리고 있다.¹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크게 두드러진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 내용의 범위는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

결책은 다루지 않았다.

2.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신문사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² 물론 미국이었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문제점으로 삼는 주된 것들은 지나친 교회성장주의, 목회자들의 세속화와 탈선 그리고 윤리의식의 실종이었다.³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문제점들 가운데 먼저 극단적 이원론을 다루려고 한다.

1) 극단적 이원론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로 먼저 극단적 이원론을 들 수 있다. 이원론

(dualism)은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실재를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손봉호 교수는 이원론에 대한 정의로 “일반적으로 현실 전체, 혹은 어떤 특정한 현실의 근본적인 기원을 서로 동등한 두 가지의 원칙에서 찾으려는 견해를 말한다”고 한다.⁴

이원론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동양학자 토머스 하이드(Thomas Hyde)가 『고대 페르시아인의 종교의 역사』(*Historia religionis Veterum Persarum*, 1700)라는 책에서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영구히 대립하는 종교체계를 이 말로 부른 것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형태는 플라톤의 이데아계(영지계)와 감성계(현상계)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작품 『티마이오스』(*Timaeus*)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

¹ 참고로 안명준, “주 5일 근무와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 「크리스천투데이 신문」 11월 9일, <http://www.chtoday.com/new/template/news_view.htm?code=oc&id=158>.

² “목회자 ‘지나친 성장주의’ 갱신대상 1호:종교 개혁절 교회갱신 설문조사 68% 응답. 미주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를 꼽아 관심을 모은다. 이는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최근 종교개혁 484주년을 맞아 미주교회 목회자 1백 명을 대상으로 교회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68%가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를 교회갱신 목록 제1호로 꼽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목회자의 세속화와 성직자 탈선 등과 같은 ‘목회자 자질 문제’ (18%)였으며, 그다음은 ‘윤리의식의 실종’ (14%)이었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5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목회자의 각성과 개혁’ (37%)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단에서 안수조건 및 기준 강화’, ‘대형교회주의 지양’, ‘평신도 바로 세우기’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목회자들에게 설문한 내용은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점들은 무엇인가? △교회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이었으며 서부와 동부의 목회자들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 대상을 뽑았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51375>>에서 인용. 2013-5-2.

³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참고로 기독교신문 취재팀 편, 『한국교회의 허와 실』 1, 2, 3 (서울: 쿤란출판사, 1993);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 1998);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http://www.socialethics.org>>. 여기서 강원돈 교수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근본주의, 물량적 성공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사회윤리 문제와 선교의 과제에 대해 단편 정치적 신학,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실로부터 유리된 신학적 담론형성에서 교회의 에큐메니칼한 현존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본다. 손봉호, 홍치모, 김영우, “종교개혁과 현 한국교회개혁의 방향”, 「충신대보」 2001년 11월 8일(화) 제242호, <<http://csdb.net/all.htm>>; 채수일, “한국교회에 대한 신학적 비판”,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월례포럼」 (2001. 6. 25), <<http://www.minjungtheology.net/forum/f2001-06-csi.htm>>.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말한다.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이 문제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목회자와 신자의 도덕성에 관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구와 제도로서의 교회에 관계된 것이다. 성직자와 신자의 각종 스캔들에서부터 지도층 인사들의 선거에서의 금품수수, 각종 신학교의 난립과 명분 없는 교파분열, 재산권과 교권을 중심으로 한 다툼, 대형교회의 세습, 교회의 양극화 등은 당사자의 개인적 비리를 넘어 기독교와 한국교회 자체의 이미지는 물론 종교로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도로서의 한국교회의 문제로서는 천미 반공주의, 정치·경제 권력과의 유착, 교회 안의 성차별과 성폭력, 권위주의적 성직자 중심주의, 대형교회 재정운영의 불투명성, 무분별하고 전두적인 해외선교 행태 등이 비판의 표적에 들어올 것이다.”

⁴ 손봉호, “이원론”, 『신학사전』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1984).

다. 이 책은 우주론에 대한 요약으로, 그는 세상이 데미우르고스(Demiurg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며, 혼돈된 물질 위에 형상의 패턴을 인쇄했다고 한다. 플라톤은 주장하기를 학문은 일시적인 것, 유한한 것, 항상 변하는 것,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진실이 될 수 없으며,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고 참된 것의 하나의 복사요, 하나의 상(像)이라고 한다.⁵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플라톤의 사상이 유한과 무한의 차이(the difference between the finite and the infinite)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서구의 철학사를 흘러서 교부들과 츠빙글리, 칼빈,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칼 바르트에서 변증신학으로 꽃을 피운다.⁶ 플라톤은 이원론 사상을 설명하기를, 보이는 것들은 복사나 유사한 것이지, 그 자체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All visible things are the copy and likeness, not the eternal things themselves, *Timaues* 29c).

결국 플라톤은 철저한 이원론(실제와 현상, 이데아와 감각적인 대상, 이성과 지각, 영혼과 육신)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필로를 통하여 클레멘트, 오리겐⁷ 그리고 어거스틴⁸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영

혼의 불멸성을 주장하는데, 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교부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성경을 알레고리 방법으로 해석했다.⁹

서구 철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체에 대한 이해에서 이원론이 철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빛과 어두움, 선과 악에서 나타난다. 기독교의 여러 개념들이 이원론적 대립의 구도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 육과 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여 기독교를 이원론의 종교라고 볼 수는 없다. 손봉호 교수는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은 이원론의 유혹을 물리치는 강한 무기라고 말한다.¹⁰

초기 한국교회는 경건하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건전한 신학과 경건한 신앙을 받게 되었다.¹¹ 그들을 통하여 신학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면서 한국교회는 일제의 핍박과 6·25전쟁의 아픔을 이겨내었다. 80년대 한국은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교회는 물질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격동기의 시련 과정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민족적 고통과 정치적 억압의 시대에 이 세상과 내세라는 도식의 이원론으로 빠져들었고, 경제적 풍성함과 사회적·윤리적 자유의 시대를 맞이해서는 교회와 이 세상이라는 도식의 이원론으로 빠져들었다.

전자의 구도에서는 기도와 기도원 그리고 치료의 은사와 신비주의의

⁵ “He pointed out that science cannot be accurately true since it deals with the temporal, the finite, the forever changing, never with the eternal. But yet the visible world is a copy, an image, of what is eternal and true.”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Introduction,” in *Timaues*, *The Collected Dialog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1151.

⁶ 유한과 무한의(infinite, unlimited) 관계를 말한 내용은 *Philebus* 15b-17b.

⁷ 문제가 되는 그의 성자의 종속론적 삼위일체, 영혼의 선재, 우주적 타락, 성육신 교리 등은 모두 플라톤의 영향이다.

⁸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플라톤의 영향도 제법 크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해석, 지식의 궁극 목표는 지복이라고 하는 가르침, 이데아들과 영원한 진리들은 항존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지식은 신적 정신에 의한 조명이라는 설명 등에서 플라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⁹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3-35.

¹⁰ 손봉호, “이원론”.

¹¹ 참고로 박응규, “일제하 한국교회의 종말론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 논총』 제2집(2000), 183; 이덕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6호; 장동민,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논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6호.

강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자의 구도에서는 지상 교회 내에서 특별은총의 충만함을 강조하였고, 일반은총의 영역으로서의 세상에서는 특별은혜의 적용이 미약하였다. 전자의 경우 초월적이며 종말론적 이원론이 강했지만, 후자는 점차적으로 영역적 이원론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결국 수직적 신앙의 형태에서 수평적인 신앙의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의 개인의 구원을 중시한 보수적인 신앙과 사회구원을 주장한 진보적 신앙이 구원을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가 하는 그 방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교회가 외형적 모습을 중시하며 그 숫자적으로 많은 성장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목회신학에서 잘 나타난다.

이런 극단적 이원론적 사고의 수정 없이는 참된 목회나 성도들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교회는 극단적 이원론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실현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 천국인 장소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를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강조한 결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즉 성도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지역교회에 지나치게 비중을 둬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¹²

2)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이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모습을 많은 면에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키프리안은 성례전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유형적 조직체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기초석을 놓았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리고 주교로부터 분리되는 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라고 말하였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와의 논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정론의 입장에서 교회를 택함 받은 자들의 단체,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참된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춘 성도의 무리로 생각하였다. 중세시대에 교회와 국가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두 권세로 보았으며, 교회를 더 상위에 두었다. 후에 그레고리 2세는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로마 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더 강화시켰다.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분리된 계급으로 주장하였다. 그들만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교회 안에서 실행하였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가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조직화된 교회를 강조하였다. 결국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큰 역할을 둬으로써 교회와 성직자들의 권위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직자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그들은 교회 사역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권위를 가졌고, 말씀의 권위보다는 전통

¹² 한국교회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참고로 홍성국, “현대 한국 기독교회의 이중성”, 『복음과 신학』4(2001), 9-28; 신현수,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 문제”, 『복음과 신학』4(2001), 63-84.

¹³ 윌리엄 위커, 『기독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7), 63.

¹⁴ 폴 스티븐스,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서울: IVP, 2001), 52.

과 기구적인 제도 그리고 외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독재적이며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맡고 있다.¹⁵ 지나친 카리스마의 남용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그런 지도자들의 권위는 로마 교황의 권세와 견줄 만하다. 이런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권위는 사라지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소멸할 것이다. 한스 쾨은 성령은 로마 교회와 사제들에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⁶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위가 앞세워진 유행교회에서 성령의 생명력 있는 역사는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의 권위, 즉 복음의 권위를 바르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권위적이며 독재적인 목회자들은 교회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외형적인 요소와 조직과 행정 등 제도적인 요소들을 강조한다. 외형적인 요소의 강조는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행위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행위와 외형적인 노력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개혁자들의 정신과는 달리 인간의 외형적 행위에 대한 강조가 심해지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중세의 로마 교회를 연상케 한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식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때문이었다. 그의 신학의 중심사상인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icit)라는 주장은 로마 가톨릭 신학의 핵심이 되었

다. 그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회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으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후에 공로사상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구원을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이런 인간의 열심과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그런 외형적인 요소들을 신앙의 열매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속의 문화와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인위적인 교회의 행위와 외형적인 행위의 표출을 벗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자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권을 주장함으로써 비역사적이며 비성경적인 교황권의 강화로 인하여 개혁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물려주는 후계 문제는 교회론의 심각한 변질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의 후계권을 신학적으로 비판하였던 개혁자들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

3) 교회의 외형적 대형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로 교회의 외형적 대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모든 대형교회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큰 교회로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성례전과 치리를 바르게 시행하며, 평신도에 대한 철저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이룩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세속적이며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외형적으로 대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어 왔다. 말씀의 굳건한 기초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관심 없이 거대한 외형적 조직체로서 있는 대형교회의 모습은 미

¹⁵ 장성우, “1992년 이후의 한국교회 권위적 구조의 문제점 분석비판-체제이론의 Feedback을 중심으로”, 〈<http://www.kccs.pe.kr/thesis09.htm>〉.

¹⁶ 에드먼트 클라우니, 『교회』 (서울: IVP, 1998), 63.

래 한국 개신교의 장래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대형교회들은 여러 모양으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이 모습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대형교회의 출현은 먼저 목회자들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 목회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에 목표를 둔 것이다. 특히 로버트 슐러(Robert Schuller)의 영향으로 성장한 어떤 초대형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의 꿈이 되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성장이라는 새로운 신화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교회성장이론의 대가인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의 교회성장이론 역시 한국교회의 대형화에 이론적 영향을 주었다.¹⁷ 이런 영향들은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교회의 본질적이며 영적인 면보다는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면에 더 많은 강조를 두게 되어 결국 초대형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대형화는 결국 미국의 상업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이 스며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한국 초대 교회의 순수했던 모습과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올바른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런 대형교회로 인하여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다름 아닌 주변의 소형교회들이다. 대형교회는 주변의 소형교회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대형교회는 카리스마적인 당회장과 함께 최신의 모든 시설을 갖

추며, 교회 프로그램의 풍성함, 전문 교육자를 통한 봉사 그리고 교회 버스 운영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끌어 모았다. 이런 결과가 나약한 교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많은 초년의 교역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희망을 꺾어 버리게 하였고,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성에 크게 손상을 입혔다. 따라서 대형교회의 출현으로 한국교회의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왔으며,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수천 명의 장로와 권사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는 초대형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기존의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급급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겸허하게 욕심을 버리고 모든 교회의 권세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 모두는 기존의 대형교회를 검증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대형교회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절실한 과제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유기체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다.

성도들이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교회에 대한 책임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와 봉사 그리고 부패한 사회 속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장으로 삼아야 한다.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사회에서 명예와 권위를 입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뜻을 실현하는 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4) 개교회주의

한국교회는 그 저변에 개교회주의라는 사상으로 교회의 성장 신화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지나친 잘못된 개교회주의를 해체하고 기독교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

¹⁷ 한국교회의 성장위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은 참고로 Myung Jun Ahn, "Current Theological Issues in Korea," Theological Forum Reformed Ecumenical Council, vol. 26(1998), 23-26. 인터넷 참고는 <<http://www.gospelcom.net/rec/TFDec98.html>>,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참고로 전호진, "한국교회의 성장과 해외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자료 인용 <<http://user.chollian.net/~ikch0102>>.

개교회주의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로서 보편성과 통일성 그리고 우 주적인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유형적 교회로서 지교회의 외형 적 성장만을 목표로 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가 나타난 배경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네비우스 방법의 부정적인 면이 바로 개교회주의를 낳았다고 한다.¹⁸ 초 기 한국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사 용된 이런 네비우스 방법은 개교회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면은 물론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회만의 독립과 성장이 지상명령이나 되는 듯 지나치게 될 때 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개교회주의는 잘못된 교파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 이 속한 교단의 강조와 타 교단에 대한 지나친 경쟁으로 기독교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 이런 문제는 노회나 총회에서 타 교단과의 교회의 통일 과 협력을 이룩하지 못한 결과이다.¹⁹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파의 벽이 높아서 그 누구도 그것을 허물지 못할 정도이다.

이런 개교회주의는 자신의 교회만을 성장시키려는 세속적 사고에 집 착할 때 더욱더 심해진다. 교인 숫자만 많고, 건물을 크게 짓고, 헌금이 풍 성한 그런 교회관을 목표로 할 때 발생한다. 이런 교회관으로 성장한 교회 는 총회나 어떤 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교회가 하 나의 큰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교회는 기존의 교회의 법을 어기고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사상에는 교회의 종말론적이며 보편적 교회관이 사라지게 된다.

¹⁸ 강원돈, “2000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개혁과제”.

¹⁹ 김남식은 교회의 일치성 부족과 경제적인 면에 너무 집착한 점을 네비우스 선교 방 법의 약점으로 지적한다. 김남식 그리고 간하배, 『한국장로교 신학사상사 특별좌담 회』 (서울: 베다니, 1997), 176.

개교회주의의 심각한 원인 중에 근본적인 것은 지나친 무자격 목회자 의 과잉 배출이다. 현 한국과 미국의 각 교단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 졸 업하는 신학생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많 은 목회자들이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해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나라의 젊은 종교인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라가 부정적 인 면도 많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활동과 봉사를 한창 할 나이에 비생산적이며 정적인 삶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국 가적 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같이 승려가 많은 나라가 대표적이 라고 말한다.

한국의 개교회주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개교회주의 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킨다. 주위의 주님의 형제 교회들을 같은 공동 체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보며, 교회의 통일성과 협력을 파 괴시킨다. 그 결과 이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며, 기독교가 감 당하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의 피로 탄생한 기독교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둘째, 지나친 개교회주의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 극단으로 흐를 때에 이단이 되기 쉽다. 특히 개교회주의 속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교회에 미칠 때는 이미 노회와 총회 그리고 교계의 올바른 조언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다. 과거에 이단들이 어떻게 거대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 고찰하면 이 런 개교회주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을 교회에만 묶어 놓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 금의 역할 그리고 봉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 성도의 신 앙생활의 영역이 교회에 한정되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지 못하고 지역적이며 현세적이며 형태적으로 흐르게 한다. 개교회주의적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오직 개교회에만 국한되어 아브라함 카이 퍼가 주장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등에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김동호 목사는 한 일간지에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교회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일반 열심히 하고 사회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인도 생겼지요. 건실한 사회인,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교회의 역할을 집중해야 합니다.”²⁰ 그의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교회주의에 묶여 사회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다.

5) 한국교회의 무속적 요소들

현재 21세기의 한국사회는 무속으로 어울려진 희귀한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계적인 예술인 백남준의 예술이 샤머니즘(Shamanism)과 통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²¹ 우리 사회는 무속이 마치 미풍양속인 것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우리의 시선을 속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국제회의 및 제 의식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샤머니즘 국제대회에서 학자들이 샤먼 유산의 마지막 발견이 한국에 있음을 직시하면서 한국의 샤머니즘 보존을 위한 연구가 심도 있게 발표되었다.²²

과거 역사 속에서 무속으로 종교화된 한민족의 삶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입고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사

회단체들의 행사에서 진혼굿이 자연스럽게 수행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일간지들이 미신을 조장하는 무속광고를 여과 없이 자유롭게 싣는다. 심지어 휴대전화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무속인들의 활동은 어떤 상담자보다도 인기가 대단하다. 서울 강남의 어떤 동네는 무속왕국으로서, 심지어 신세대까지 무속인들이 공략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방송되었다. 무속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미신을 타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며, 참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이란 말은 시베리아의 퉁그스족의 언어인 saman(주술사)에서 유래했는데 무녀, 예언자 및 의사를 뜻한다. 만주족의 살만과 인도의 sramana(산스크리트어로 ‘승려’)는 동일 계열의 어원으로 알려졌다. 샤먼의 역할은 병마를 축출하고 재난과 불행을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결국 현재적인 실리 본위의 원시적 종교 형태이다.

한국 무속의 기원이 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오랜 고대사회 때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형태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자들에 의하면 국조 단군이 무당이라는 설도 있다. 무속이 문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서, 김대문에 의하면 신라 2대 왕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왕호(王號)이자 무칭(巫稱)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단편적으로 백제, 고려의 왕들이 무당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²³ 이와 같이 한민족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무속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때 멸종한 듯하다가 최근에 한국의 불황과 직업의 불안정 속에서 대다수 사람들과 특히 신세대 젊은이들 속에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

²⁰ 「중앙일보」 2002년 1월 10일.

²¹ 「동아일보」 2002년 3월 21일. 기사 제목 “백남준 예술세계는 샤머니즘과 통한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n=200203210331&main=1>>. “첨단 미디어아트는 한국의 원초적인 샤머니즘과 통한다. 비디오아트와 같은 미디어아트는 가상과 현실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공간을 마련한다. 샤머니즘에서 무당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 저승과 이승, 초월 공간과 현실 공간을 매개하는 일종의 미디어 역할을 한다. 백남준(사진)의 비디오아트도 이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²² 「샤먼 유산의 발견」, Unpublished Pape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년.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로 Mircea Eliade, *Shama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가 유익.

²³ 샤머니즘, 『두산백과사전』.

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속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이런 무속적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²⁴ 이런 요소는 전도에서 나타난다. 전도에 있어서 기독교를 기복적인 종교로 오해시켜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마치 기독교가 물질적인 축복을 제공하는 샤머니즘적 종교로 인식되기 쉽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호의 무속적인 위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과 정비례한다는 믿음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살고 내 영혼이 매사에 잘된다는 의미로 오인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신앙은 현세 중심적 기복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축복을 강조하는 신앙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영혼의 투쟁,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가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 영적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한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와 샤머니즘적 형태를 혼동한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주로 성령은 병을 고치며 신비한 은사를 제공하는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분으로만 이해한다. 병든 자를 고치는 무당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병 고치는 일에만 제한시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

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제한은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적이며 형제를 사랑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로 이어지는 것을 망각하게 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복적 신앙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배경은 목회자가 건전한 신학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원한다.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물질적 드림이나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이 자신을 위하여 임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가깝다.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서 자연에 속한 물질을 드린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수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이요, 재물을 통하여 현세에서 복을 얻으려는 무속적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일이다.

6) 목회자의 윤리의식 실종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기도 그리고 설교와 심방을 통하여 나타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존경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면에 쓰기 민망할 정도로 목회자의 윤리적 붕괴를 맞고 있다.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최고의 윤리적 종교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지도자로서 윤리의 모범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최근 언론이 나타난 목회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 부천에서 자신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사는 이웃집들에 방

²⁴ 한국교회와 무속에 관한 연구로 신경하, “무속 현상에 대한 목회적 대응”, 『기독교 사상』 12월(1996), 61-68; 노치준, “한국 기독교와 기복신앙”, 『전통과 현대』 가을호(1998), 134-151.

화를 저지른 목회자가 있었으며, 일반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어 노름에서 번 돈을 주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손을 자동차 바퀴로 밟은 목회자가 있었고, 산업금융채권 위조단을 만들어서 개척교회를 세우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한 모 신학교의 부학장이 있었으며, 몇몇 목회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돈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기들의 공동체에 속한 한 목회자의 아내를 집단 살해하고 오랫동안 시신을 부활시키고 소동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으며, 평소 지역주민에게 존경받고 참신했던 목회자가 빚을 갚기 위해 외설적인 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먼저 목회자 윤리의식 실종의 심각성은 바로 성적 타락에서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감각의 시대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감각의 시대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으로 감각적 성의 드러남이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혼 전 성 경험은 해마다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 국내 모 대학 학생들의 순결의식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혼전 순결을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욕이 강하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조사에서 보듯이,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성 윤리는 무너지고 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을 쾌락적으로 즐기고 보자는 사고가 만연하고 있다. 많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작위로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공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성적인 탈선의 문제에 대해 이제 목회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여성상담소에 따르면 1998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은 51건이었으며, 이중 목회자 관련 성폭력은 46건으로

나타났다.²⁵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년 통계에서도 성직자 관련 성폭력 신고 건은 모두 32건이었다.²⁶ 하지만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는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회자의 이성문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성문제로 교회에서 사임을 강요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적 타락은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성 개방 시대에 목회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 그리고 철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미국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교역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⁷ 최근의 한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어느 초대형 교회의 목회자는 연 1억 정도의 십일조를 교회에 헌금한다고 한다.²⁸ 요즘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조용히 사임하는 조건으로 또는 퇴임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협상하는 실정이다. 교회 재정과 관련하여 어떤 목회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자기가 사용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헌금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것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무슨 협의회 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하는 명예의 타이틀에 목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 명예의 직함보다는 섬기는 리더로서, 봉사하는 종으로서,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의 추천과 자신의 헌신된 마음으

²⁵ <<http://www.8275.org/article/>>.

²⁶ <<http://www.sisters.or.kr/>>.

²⁷ Richard C. Gamble, "Reformed Theology and its Relevance to Evangelical Theology", Unpublished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vangelical Theology,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001), 44.

²⁸ 「동아일보」 2001년 6월 7일.

로 그런 일을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명예가 걸린 일에 서로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그것도 돈을 뿌리며 상대 후보와 깨끗하지 못한 경쟁을 통하여 선거에 이기려는 현상은 목회자의 윤리에 심각한 병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 어떤 교단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총회장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학자들이 오래전에 주장해 왔던 것으로 한국교회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사건이다.²⁹

최근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목회자들 역시 개교회에서 지나친 자신의 카리스마를 강조하지 말고 평신도에 대한 배려와 그들이 개교회에서 받은 바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왕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손봉호 교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목에 힘을 너무 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윤리에 대하여 몇 가지의 좋은 조언을 한국교회에 남겼다.³⁰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맹에 의하여 공식으로 결정된 목회자 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

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위선이요, 성도들의 성화와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된다.”

3.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과제

한국교회는 잘못된 극단적 이원론의 세계관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분리되어 내세에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실현되어 가는 과정임을 교회에서 주장해야 한다.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화의 변혁자로서 사는 크리스천의 삶을 말해야 한다.³¹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며, 오직 주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성령님의 권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목회자의 카리스마와 맹목적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참된 기능과 평신도들의 은사에 맞는 교회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의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대형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시와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약화되어 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사

²⁹ 「국민일보」 2002년 1월 3일.

³⁰ 손봉호 교수가 제안하는 목회자 윤리강령, 「디지털 성결」 제316호 2001년 3월 10일.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으며, 감정적이고 야비하고 저속한 말을 하지 말며, 일 처리를 공정정대하고 합리적으로 하며, 편견, 편애, 과장, 왜곡을 피해야 한다. 소독과 소비에 있어 절제하고 검소하며, 자격 없이 명예, 지위, 권리의 획득을 시도하지 않으며, 가정에 충실하고 이성문제로 어떤 오해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호와 취미 활동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으며, 타 종교인에 공정하고 예의를 지키고, 공익을 위한 사회적 활동은 하지만 파당적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http://www.kehnews.co.kr/news/2001/316/인물손봉호.htm>>.

³¹ 제임스 사이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IVP, 1986).

랑과 기도,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개교회주의는 기독교의 연합성과 통일성을 간과하여 지나치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잘못된 개교회주의 사고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고의 실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적용과 성령이 하나로 매는 역사를 통하여 새롭고 건전하게 성숙해질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머니즘의 요소들을 스스로 버릴 때가 되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기복적 물질의 풍성함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기복적인 강조는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축복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또 현세 중심적 구원의 축복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지, 현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목회자 윤리에 대한 의식을 먼저 새롭게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목회자는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어 타의 모범이 되며, 지나치게 비성경적인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하며, 주의 종으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영성뿐만 아니라 전 인격의 수양도 필요하다. 복음 전파에 헌신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윤리가 무너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윤리 회복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4. 결론

한국교회의 여러 신학적 문제점은 다양한 한국적 상황에서 형성되었

다. 또 현대의 세속적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철을 많이 닮아 가는 현상은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실시되며, 신학과 목회가 성경으로 검증받아 참된 교회를 위한 올바른 신학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은 이제 그 극복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군선교신학 제11권 연구위원논문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Biblical Perspective and Christian Attitude
Regarding the Economic Crisis

■ 김성봉 Kim, Sung Bong

- 대신총회신학대학 교수
-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1. 우리 사고의 전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때로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권위가 서로 엇갈리며 만나게 될 때에 자칫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권위를 그 근거로 인정하고 그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제반 권위들을 배타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각각의 권위들을 나름대로 인정하되, 그 궁극적인 권위의 근거를 성경에다 두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1)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라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인용하고 적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에는 성경 특유의 해석 원리가 있고, 그 해석 원리에 따라 해석된 결과들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 성경 중심이라 일컫는다. 성경 중심의 자세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뿐 아니라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다.

2) 교회/하나님의 백성 중심의 역사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실 때에 교회/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대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상대하셔서 전 애굽을 다루셨으며(창 41장 이하), 요나를 상대하셔서 그 배와 선장과 선원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루셨으며(욥 1장), 또한 다니엘을 상대하셔서 전 바벨론을 다루셨다(단 1-6장). 그리고 바울을 상대하셔서 배에 탔던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죄수들을 다루셨다(행 27장). 눈을 들어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면을 너무나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 지구상에서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들을 중심으로 엮어내셨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몇몇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담당자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요나 때문에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보아야 하겠다는 말이다.¹

2.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

이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교회에 허락된 기회를 잘못 쓴 데 대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라고 보여진다.

1)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때 말하는 ‘기회’란 물질적 풍요, 건강, 지위 등 이 세상에서 남달리 받은 여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말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와 질적으로 다르다. 우상숭배에 있어서는 일단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면 그만이다. 받은 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전통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그분의 관심에 따라서 쓰는 일이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받은 기회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때로는 잘못 쓴 결과에 따른 책임이 중하여서 차라리 그런 기회를 받지 않

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면서 그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상하게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그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 받을 징계까지도 미리 경고하심으로 더욱 경성하여 그 기회를 제대로 쓰도록 하셨다. 예를 들어,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신 것은 그것들을 잘 지켜 살도록 주신 것이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며 살도록 권고하신 많은 말씀들²도 그 기회를 주신 목적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경고의 말씀은 그 기회를 받은 자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표현들이다.³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기회를 받아놓고도 그 기회를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고 되묻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에 그 받은 기회를 심판거리로 만들게 되고 말 것이다.

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신 15:7-11).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삷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신 24:14-22).

¹ 조용훈 교수는 “IMF 시대의 한국교회의 윤리적 과제”(『기상』 471호, 98년 3월호)란 글에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문제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우리의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실패가 결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필자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말하고 싶다.

2)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 기회를 자기 관심대로만 써 버리는 성도들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주신 분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쓰는 일이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기회를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대로 써 버린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취하였던 자세와 행동들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다. 선지서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외침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호 13:6).

³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얻게 하시며……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0-13).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신 8:11-20).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나……”(신 28:47-48).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신 32:15).

3) 기회를 거두시고, 차압된 기회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중의 하나가 바로 에스겔서이다. 에스겔서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구구절절 그려져 있다. 풍요를 구가하던 그 백성을 내몰아 기근과 궁핍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당하게 하며 심지어 전쟁을 당하여 죽게까지 만드시는 목적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⁴ 그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겔 20:26).

풍요와 여유 속에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것을 빈곤과 궁핍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3. 자본주의의 발전에 끼친 칼빈주의의 긍정적인 영향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합리적인 종교생활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초기 프로테스탄트들은 효력이 있는 신앙을 갖자면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특히 경제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리적인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직업과 노동은 이 생활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간주되었다.⁵ 이러한 자세의 기반과 근거를 형성한 칼빈의 가르침과 칼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미쳤을 긍정적인

⁴ 겔 67과 그 관주.

영향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앙에 근거한 금욕주의

양창삼은 칼빈의 경제생활윤리로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현세를 경멸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극단을 피하는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데,⁵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근대자본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자기부정의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

그에 의하면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적 삶의 전제는 자기부정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의 미덕을 갖추어야 하며, 교만, 허영심, 탐욕, 방탕, 쾌락, 방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부정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순종을 가르치며 결국 구원의 영적 기쁨과 소망을 준다. 부와 명예를 얻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형통하는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릴 때 오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때 십자가를 허용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오만을 방해하고 진압하신다고 한다.

(2)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되 현세를 경멸하지 않음

칼빈은 우리가 현세를 과대평가하여 부와 권력과 명예의 외적 광채에

눈이 어두워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것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그 때문에 세상살이를 싫어한다든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3) 극단을 피하는 생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버려서도 안 되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 세상에 살되 성경의 교훈을 좇아 세상을 규모 있게 사용하야 한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야 하며, 진정한 감사로 남용을 억제하야 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며, 궁핍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야 한다.

2) 돈과 노동과 임금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되살림

비엘러에 의하면, 칼빈은 최초로 물질생활이 구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리라고 이해하였다.⁷ 칼빈은 신앙과 세상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세속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었으며, 신앙생활은 중세적인 태도로 재물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 전체의 물질생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은 신앙의 지평으로부터 배제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생활의 종이 된다. 이처럼 물질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자 정신과 물질을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고대 기독교 전통은 깨어졌다.

⁵ 양창삼, 『기독교와 현대사회』(1997), 244.

⁶ Ibid., 256 이하.

⁷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110.

물질생활을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킨 칼빈의 입장은 청교도 사회의 경제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제 관계는 만물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던 상황으로부터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음화와 선교는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두 가지는 경제생활을 회복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조건이다. 이처럼 한때 교회의 멸시를 받았던 경제생활을 칼빈이 회복시킴에 따라 청교도 사회의 발전에 주목할 만한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은 분명하다.⁸

(1)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돈

칼빈은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고 가르친다. 돈은 이러한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과 그의 동료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돈은 단순히 공리주의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명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돈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저주의 표시이다. 즉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의 소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은총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겐 저주의 표시이다.⁹

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양면적으로 시험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진실로 믿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일부러

돈이 부족한 상황 속에 빠뜨리시며, 또한 하나님은 풍요, 번영, 단순한 위로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¹⁰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어내신다.¹¹

(2) 노동과 임금

노동의 원리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그의 선조들에 비하면 혁신적인 것이었다. 중세 신학자들은 중세의 기독교 교리에 부응하여 노동을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세속적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나 칼빈은 노동을 기독교인의 삶과 엄격히 연관시켰다. 그는 복음이 노동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인간의 활동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정신적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칼빈주의적 이념을 계승한 사회가 발흥하여 발전되기에 이르렀다.¹²

노동에 비하여 임금은 칼빈이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였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적정한 봉급의 문제를 논의할 때 가설적인 자연법에서 출발한 하나의 규범을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임금이 하나님의 무상의 보수라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그 문제를 직접 성경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했다. 봉급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은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감안해서 책정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¹³

이처럼 칼빈이 돈과 노동의 기능을 되살려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인간들이 노동을 통해 돈 버는 일을 이상화한

⁸ Ibid.

⁹ Ibid., 56.

¹⁰ Ibid., 57.

¹¹ 리처드 포스터,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역 (서울:두란노, 1995)이 참고할 만하다.

¹² 비엘러, op. cit., 84.

¹³ Ibid., 91-92.

것까지 칼빈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칼빈은 돈과 노동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3)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경제관

비엘러에 의하면 칼빈의 경제관은 ‘개인주의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적 개인주의’라고 한다.¹⁴ 개인과 사회를 함께 보는 경제관을 제시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주었다. 칼빈은 개인의 경제적 책임과 국가의 통제가 균형을 이룰 때라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재적인 통찰이다. 복음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인간의 개인생활을 완전히 꽃피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칼빈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그는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유대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경제생활에 적극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만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애매모호함을 인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만 개인의 권익만을 보호하면 조화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칼빈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의 필요를 존중하는 두 극 사이에서 항상 새로운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부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말하면서 질서가 상실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일방이 희생되면서 다른 일방이 재산을 획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산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¹⁴ Ibid., 50.

¹⁵ Ibid., 73.

(1)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관심

다음의 인용문들은 칼빈의 경제 및 사회사상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개인과 사회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그의 균형 잡힌 경제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상의 물품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들의 권리는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물품을 탐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그것을 견디어 내야 한다. 우리가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를 막론하고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악한 욕망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¹⁶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직하게 일해야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¹⁷

(2) 인간들 사이의 재산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이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재산의 불균형 현상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은 끊임없는 재산의 재분배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

¹⁶ Ibid., 113.

¹⁷ Ibid., 113-114.

다. 이러한 재분배는 더 부유한 자들로부터 더 가난한 자들에게로 향한 것이다.¹⁸ 이런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특히 사회적 삶은 부단한 상품의 교환이요 인간의 상호보완적 삶과 의무적 연대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⁹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부의 순환에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로 사심 없는 선물이 전달되는 것을 유발시킨다.²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또 평등한 태도를 서로 갹춤으로써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자나 지나치게 적게 소유한 자가 없기를 원하신다.”²¹

이처럼 모든 회원들 사이에서 물품을 상호 교환하는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새롭게 설립하였다.²² 집사들의 의무는 공동체의 회원들 사이에서 재산이 상통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 영적 단결력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상업 그리고 은행

칼빈은 교역과 상업이 사회 안에서 인류의 보존을 위해 차지하는 섭리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해 낸 최초의 신학자이다.²³ 칼빈은 사회 활동에 내포된 몇 가지 위험들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남용하거나 과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업이 지닌 하나

님의 섭리로서의 역할과 본래적 권위를 강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직한 계약, 계량 기구의 정확성, 상업윤리, 독과점에 대한 경고 등은 오늘날도 현대 경제학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다.²⁴

화폐경제에 대한 칼빈의 경제사상은 가장 명료하며 또한 가장 혁명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²⁵ 칼빈은 이자대부의 원리를 구체화시켰는데, 이 원리는 신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며 경제생활을 크게 촉진시킨 것이라고 한다.²⁶ 또한 칼빈이 성경 안에서 발견한 경제의 원리들은 현대 경제학의 효시가 되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경제적 현실을 매우 명료한 안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이 이자 또는 고리대금업에 관해 말할 때에는 산업 대부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²⁷ 또한 칼빈은 돈이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라고 확언한다.²⁸ 그러면서도 그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성의 모습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다.²⁹ 칼빈은 당대의 경제학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이자율이 생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모든 이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의해 지불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³⁰

이처럼 칼빈이 신앙세계에서 이자 대부를 허용한 것은 역사상 큰 전환점을 형성했다. 칼빈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과 통제를 가했던 것과 더불어 그의 후계자들은 몇 가지 유보조항을 더 마련했는

¹⁸ Ibid., 58.

¹⁹ Ibid., 58-59.

²⁰ Ibid., 59. 우리는 여기에서 칼빈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대한 주석에서 밝힌 바 있는 ‘만나 분배의 원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²¹ Ibid., 68.

²² Ibid., 69.

²³ Ibid., 96.

²⁴ Ibid.

²⁵ Ibid., 97.

²⁶ Ibid., 100.

²⁷ Ibid., 101.

²⁸ Ibid.

²⁹ Ibid., 102.

³⁰ Ibid., 103.

데, 이 조항들이 그들의 정신을 보여 준다.³¹

4. 교회와 경제생활

1) 교회의 수입

교회의 수입은 주로 헌금에 의존한다. 헌금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하여 드려지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헌금 중에서도 특별히 십일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십일조를 하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쟁고 가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누가 구원의 문제를 십일조와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이 땅에 건전한 종교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장할 것이 십일조라고 말하고 싶다. 십일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현이다.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일에 십일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적절한 기준으로 십일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회의 수입이 주로 십일조에 의존하지만 그럼에도 헌금 이외의 수입원이 있을 수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교회가 합법적인 수익 수단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 헌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지라도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혹 그 용도에 따라 면세조치가 있을 때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유관 기관에서 장학이나 선교나 구제를 지속적으로

³¹ Ibid., 103-104.

후원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청교도 설교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그 영향력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시도가 ‘청교도 재산 관리인’(feoffees)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 일은 위원회 혹은 협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1626년에 시작되어 윌리엄 구지와 리처드 십스에 의해 인도되었다. 평신도가 토지를 구입하고 청교도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그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위원회는 12명의 재산관리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목사, 법률가, 시민 각각 네 명씩이었다. 그들은 7년 만에 약 6천 파운드를 모금해서 그것으로 열세 군데의 땅을 구입했으며, 그들은 ‘복음의 보다 광범위한 전파를 위해 도시들과 시골 여기저기에 있는 시장 마을들에 강력한 목회자들을 심고자’ 했다.³²

2) 교회의 지출

교회의 재정은 주로 헌금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요하게 된다. 때문에 교회에서의 재정 지출은 투명하고 공의로워야 한다. 그런 면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영수증 처리를 확실히 하며 회계장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출은 일차적으로 목회자의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평균 수입을 조금 웃도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목회자의 생활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성도들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듯이 여겨져도 안 되었고, 너무 적게 책정되어 궁하게 보여도 좋지 않다. 목회자에게 따르는 경제적 궁핍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³² 피터 톤, 『청교도와 칼빈주의』, 양낙홍 역 (서울: CLC, 2009), 43.

종교개혁 이후 취리히에서 수도원들이 폐쇄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로 전환되면서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새롭게 개신교 목사의 신분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 나타난 문제는 당연히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 부양이었다. 당시 취리히 교회의 재산은 불링거가 교회 의장으로 선출될 때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충분치 못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 때문에 당시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엄격한 학문과정을 밟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 교회의 봉사자가 되더라도 그 현실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었다.³³

시대정신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목회자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어디까지나 사례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과세 문제는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종래에 주장되었던 사례로서의 의미가 이미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공교회적인 면을 더 나타내려면 목회자의 생활비가 최소한 노회 단위로 목회하는 교회의 위치나 규모를 초월하여 어느 정도 균등을 이루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아니하다. 적어도 총회적으로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노회적으로 목사 고시를 치러서 목사로서 안수 받은 경우에는 총회와 노회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시대적 배경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교개혁 당시의

불링거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자. 그는 교회와 수도원의 자선기금을 목회자들을 위한 학교의 개선과 함께 일반 어린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와 라틴어 학교들을 개선 확대시키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취리히 학교들의 새로운 정비는 그 사회의 개혁주의 신앙정신에 부합된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권위와 인권의식을 발전시키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신장 속에서 그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단순히 먹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제도 개선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다.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켰으며, 농노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가난한 친척들을 돌보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도로개설공사 같은 일자리 창출이나 수공업 관련 직업을 갖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있도록 도왔다. 그 밖에도 공공기금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땀감이나 옷 그리고 집세를 보조하였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시민들에게 자선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한 가난과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공동체 의식을 고무시켰다고 한다.³⁴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교회의 경제적 활동의 폭이 훨씬 줄어들어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일들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의 때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보장 제도이다. 정상적인 수입이 있을 때에 매월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한 성도에게는 그가 실직이 되어 경제적 어

³³ K. J. Rueetschi, Bullinger, der Schulpolitiker, in Der Nachfolger Heinrich Bullinger (1504-1575), S. 69. 박상봉, “취리히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역”, 5(미간 논문)에서 재인용.

³⁴ 사회적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서 불링거는 다양한 글들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상기할 수 있다: “새로운 이자법”(Eine neue Zinsordnung, 1534),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Zur Armenfuersorge, 1558), “고리대금업에 대한 조치”(Massnahme gegen den Wucher, 1568), “가난 극복을 위한 제안”(Vorschlag zur Bekaempfung von Armut, 1572). 박상봉, “취리히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의 생애와 사역”, 6(미간 논문)에서 재인용.

려움을 당할 때 최소한 그가 평소에 한 십일조에 준하는 금액을 구제비로 되돌려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인 구제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하겠지만……. 구약에서 언급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배려는 오늘날 교회가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구제의 폭이라 생각한다. 일차적으로는 교회 내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 밖 인근 주민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으로 국가공동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때에 출산에 대한 장려의 뜻으로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일도 교회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같은 교회공동체에 속한 어느 가정의 자녀도 경제적 빈곤의 이유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누리는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업을 지속하는 일이라든가, 재능을 개발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그러하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웃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교회가 성경의 정신에 따라 먼저 개척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그 좋은 결과를 사회가 보고 좋게 여겨서 국가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앙적 대처방안

1) 경제문제에만 마음 쓰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

우리는 이런 형편을 당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경제문제에만 쏟기 쉬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의 근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게 되는 셈이다.³⁵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그것을 붙들고 씨름

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본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놓고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금식과 철야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크고 많은 것을 받아내는 데만 온통 우리의 관심을 쏟았을 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들을 제대로 쓰기 위하여 철야하고 금식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환경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우리는 실직과 공황의 불안에 떨며, 실제로 배고픔과 혈벗음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배고프다고 보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2) 기회를 잘못 쓴 데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마음 자세, 영적 실력을 길러야 함

풍요의 기회를 차압당하게 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떠나가는 풍요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반 경제학자들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이다. 신앙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든지, 일부를 거두어

³⁵ 박충구 교수도 “IMF 위기에 직면한 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 (『기상』 471호, 98년 3월호)란 제목의 글에서 “나는 이 IMF 시대에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가치가 붕괴할 때, 인간을 지키고 참된 의미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더욱 강한 교회가 요청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그는 “경제적 번영이 다시 찾아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해도 좋은가?”라고 묻고는, “그렇지 않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종교인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IMF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밑 빠진 독 같은 우리에게 풍요를 쏟아 부어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신의 심판거리만 장만하지 않겠는가?

떠나가는 기회를 부여잡으려고 허우적거리기보다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소원과 관심에 따라서 살기를 결심하며, 그 결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³⁶

3) 다시 기회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세라도 회복하게 되면 인생으로서는 그다지 손해가 아님을 알아야 함

많은 경우에 기회를 차압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한다. 회개만 하면 그 기회를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회개하고 난 뒤에 그 기회를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되돌려 받는 데 마음을 쓴다면 그 역시 바른 회개라고 말하기 어렵다.

³⁶ 박충구 교수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고질적 병폐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였다: a. 한국교회에 깊이 몰들어 있는 편가르기 문화 b. 물질만능주의의 수용 c. 자기도취 d. 진실한 지도자의 부재(상계서)

손인웅 목사도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과제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a. 신학교육 개혁과 신학교 난립을 정비함으로써 지도자 양성을 바르게 해야 하며, b. 한국교회의 목표를 성장지상주의에서 성숙을 통한 성장으로 바꾸어야 하며, c. 교회의 구조와 제도와 의식과 선교방법 등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해야 하며, d. 교회운영의 민주화와 교회예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성도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야 하며, e. 평신도들의 자원을 개발해서 선교와 봉사의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하며, f. 한국교회가 미래사회에 기여해야 할 역할들을 정립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기상』 471호, 98년 3월호)

그 기회를 되돌려 주시고 아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다. 그 때문에 기회를 되돌려 받고 아니 받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성도로서 힘을 일은 오직 회개에 전념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기회를 되돌려 받는 것만 은혜인 것은 아니다. 다시 기회를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요, 바른 마음 자세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작지 않은 은혜이다.³⁷

4) 성도를 멸하시기보다 성도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징계일진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와 감격을 드려야 함

성도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7-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10절)이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10절)이라고 하였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 성도로 살면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8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11절)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비록 가혹하고 견디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징계라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달게 받아야 하겠는가! 온 세상이 다 운다고 성도들마저 울어야 하겠는가? 이제 이 같은 내면을 본 성도들은 지금 처지에서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³⁷ 조용훈 교수는 IMF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

a. 회개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b.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c.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d. 새로운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 등이다(상계서).

‘버려두심’ (롬 1:24, 26, 28)으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니 감사하고, 간섭하셔서 새롭게 빚어 가시니 더욱 감사하다. 시선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좀 더 잘 먹고 잘사는 문제에 대하여는 초연하게 된다.

5) 성경적 삶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야 함

처음부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어야 마땅하지만, 한발 뒤늦게 후회하고 고치는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인데,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겠다. 그럼 어떤 것이 성경적 삶의 원리인가?

(1)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여야 하겠다.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교훈 서신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딤후 6:6)라고 하였다.

(2) 받은 기회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신 분을 자랑하여야 하겠다.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교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중하면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하였는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자각을 가진 성도로서는 헛된 자랑을 버려야 하겠다. 이 같은 정신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

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렘 9:23-24).

(3) 받은 기회를 자신의 관심에 따라 쓰지 말고 주신 분의 관심에 따라 쓰야 하겠다.

우리는 여태껏 내 손에 가진 것을 거의 내 맘대로 다 써버렸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들이 비록 내 손에 주어졌으나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며, 나는 단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청지기는 제 맘대로 쓰는 자가 아니다.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쓰는 자이다. 우리에게 이 정신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될 때 비로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이해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만 되면 먹고 마시는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4) 남들보다 더 받은 기회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야 하겠다.

이제까지는 남들보다 더 받은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세우며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였고, 또 그러한 자세를 당연시 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며 살아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

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5-27).

이러한 정신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그때로부터도 천여 년 전에 솔로몬의 아들을 자문하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갈파하였던 정신이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왕상 12:7).

6. 기대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아야 함

징계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동시에 시련이기도 한데, 징계에 목적이 있듯이 시련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무슨 목적인가? 앞서 살았던 성도 욥은 시련의 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순금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도의 내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 선생이 말한 인내나, 사도 바울이 말한 인내나 연단 같은 것이 아닌가?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약 1:2-3)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라고 하였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거치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로 거듭나야 하겠다.

2)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

풍요와 안일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성도다운 모습을 빈궁과 곤란 속에서 다시 찾게 된다면 어찌 그것을 마다하겠으며, 이 같은 성숙을 어찌 가볍게 여기겠는가! 지나치게 비대한 재벌들이 제대로 내실을 갖추지 못하여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일면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그 같은 논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리라 생각한다. 대형교회의 그늘 아래 안주하며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성도인 양 행세하던 성도들도 차제에는 정신을 차려 제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실한 신앙 수준을 갖춘 중소 규모의 교회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3) 이 같은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 또한 주시기를 간구함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 모두 이 난국을 잘 감당하여 예비하신 성숙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빈다.